

碩士學位論文

年少老人(young-old)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care service) 認識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徐 丙 鎮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佛教社會福祉學科

林 松 禧

2008

碩士學位論文

年少老人(young-old)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care service) 認識에 관한 研究

林 松 禧

指導教授 徐 丙 鎮

이 논문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8年 8月 日

林松禧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준함

2008年 8月 日

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4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5</b>
제1절 연소노인의 정의 .....	5
1. 노인의 정의 .....	5
2. 노인의 연령적 구분 .....	6
3. 연소노인의 정의 .....	9
제2절 현대사회의 변화 .....	13
1. 인구학적 변화 .....	13
2. 복지환경의 변화 .....	17
제3절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	30
1.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개념 .....	31
2.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	34
3.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영역 .....	38
제4절 선행연구 .....	48
<b>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b> .....	<b>49</b>
제1절 조사 설계 .....	49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49

2. 조사도구 .....	49
3. 분석방법 .....	51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	5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1
2. 조사결과의 분석 .....	55
<b>제4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b>	<b>108</b>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	108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	108
2. 고령화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	109
3.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	110
제2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	112
<b>제5장 결론 .....</b>	<b>116</b>
참고 문헌 .....	120
<b>ABSTRACT .....</b>	<b>125</b>
설문지 .....	128

## 표 목차

<표 1> 2007,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	12
<표 2> 연령 3계층별 인구 추이 : 1980~2040년 .....	14
<표 3>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	16
<표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17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2
<표 6> 노인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55
<표 7> 노인인정연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 .....	56
<표 8> 평균수명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58
<표 9> 여성 평균수명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60
<표 10> 남성 평균수명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62
<표 11> 고령화 사회 용어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64
<표 12>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66
<표 13>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진입년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67
<표 14>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	69
<표 15> 초 고령사회 용어 인지의 차이 .....	70
<표 16> 초 고령사회 진입 인지여부의 차이 .....	72
<표 17> 우리나라의 초 고령사회 진입년도 인식의 차이 .....	74
<표 18> 초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	75
<표 19> 모든 노인이 노인복지 대상임에 대한 인지여부의 차이 .....	77
<표 20> 노인복지 종사에 대한 의향의 차이 .....	79
<표 21> 노인복지 종사분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 .....	80
<표 22> 노인복지 외 사회활동 종사의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 .....	82
<표 23> 노인복지 외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 차이 .....	83
<표 24>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여부의 차이 .....	85
<표 25>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인지자의 인식의 차이 .....	86

<표 26> 노-노 케어 비인지자에게 의미 전달 후 인식의 차이 .....	88
<표 27>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의향의 차이 .....	89
<표 28>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에 적당한 연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1
<표 29>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수고비의 최저금액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2
<표 30>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일일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4
<표 31> 노인문제 해결사로서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5
<표 32> 노인문제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위한 교육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의 차이 .....	97
<표 33> 노인문제해결사의 역할을 위해 이수해야할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8
<표 34>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여겨질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00
<표 35> 초 고령사회에서 노-노 케어가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02
<표 36> 연소노인이 노인 케어를 수행할시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03
<표 37> 연소노인이 노인 케어를 수행할시 유익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05
<표 38> 고령화사회 용어 인지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용어 인지의 차이 .....	106
<표 39>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제공활동 의향의 차이 .....	107

## 그림 목차

<그림 1> 장래인구 신추계 .....	15
-----------------------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통계청<sup>1)</sup>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구조에 있어서 14세 이하 유·소년(幼少年) 인구는 2007년 총인구의 18%인 873만 4천여 명이나 출산율(出生率) 둔화(鈍化) 등으로 계속하여 감소(減少)하는 추세(趨勢)이며, 그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比重)은 계속 높아져 48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9%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6년 9.5%보다 0.4%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인구성장률(0.33%)을 넘어서는 수치(數値)이며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老齡化)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8년을 기점으로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역전(逆戰)되기 시작하면서 기형적(畸形的)인 인구구조 형태(形態)가 더욱 심화(深化)되어 점점 더 밑바닥이 좁아지는 장방형(長方形)의 항아리 모양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豫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前望)은 우리사회가 2000년 노인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高齡化社會)에 진입한 이래 불과 26년의 경과(經過) 후인 2026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20.8%로 급속히 초 고령(超高齡)사회로 진전된다는 것이며<sup>3)</sup> 이에 따라 모든 사회구성원(社會構成員)들이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엄청난 충격(衝擊)에 직면(直面)하게 될 것임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화(高齡社會化) 된다는 것은 노년부양비(老年扶養費)의 폭발적인 증가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병약(病弱)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增加)한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

1) 통계청(2007 한국의 사회지표, 2008. 2

2) 상계서 p.2-3.

3) 통계청(2007 고령자통계) p.2

노인부양의 과도(過度)한 짐은 사회계층(社會階層)간의 화합(和合)을 저해(沮害)하여 우리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갈등요인(葛藤要因)으로 작용할 소지(素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예견(豫見)되어 진다. 따라서 노령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모습의 사회공동체(社會共同體)의 모델이 시급히 제시(提示)되어야만 할 것이며, 사회 구성원 간에 화합(和合)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擴散)을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통합(統合)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준비가 미흡(未洽)한 상태에서 급속(急速)히 고령사회로의 진입(進入)이 진행된다면 노부모의 부양(扶養)을 감당치 못하는 혈족(血族)들에 의해 자행(自行)되는 반 인륜행위라 할 수 있는 노부모 유기(遺棄) 및 방치(放置), 학대(虐待)를 방조하는 사태를 유발(誘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良相)은 심지어 노인을 최악시하며 사회의 해악(害惡)으로까지 여기는 청년세대의 저항(抵抗)에 부딪혀 세대 간의 갈등(葛藤)을 야기(惹起)함으로써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逢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재앙(災殃)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우려(憂慮)되는 고령사회를 슬기롭게 대처(對處)할 수 있는 방안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合意)아래 사회적으로 시급히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초 고령 사회를 극복(克服)하기 위한 방안가운데 한 방편(方便)으로서 고령사회에서 중추적(中樞的)인 역할(役割)을 담당해야 할 세대(世代)로서 미국의 성인학자 뉴 가르텐의 역연령(曆年齡)에 의한 노인분류 그룹 중 연소노인(55세 이상-64세 이하)세대<sup>4)</sup>에 주목(注目)하게 되었다. 이들 세대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9%를 구성하고 있으며, 440여만 명<sup>5)</sup>에 이른다.

연소노인세대(年少老人世代)는 유·소년(幼少年) 및 청·장년세대(靑壯年世代)와 노인세대(老人世代)의 연결고리로서 모든 세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대

---

4) 홍숙자 (2001) p.58 재인용

5) 각 시·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2007,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들은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우리사회의 황금세대(golden age)들이 될 것이다. ‘황금세대’라 함은 1945년 이후 태어난 전후세대(前後世代)로 뉴 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를 지칭 한다<sup>6)</sup>. 이 세대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로 여생(餘生)을 보내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대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스포츠·여행 등 건강과 여가(餘暇)를 즐기기 위한 동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소노인세대들의 삶의 노하우와 잠재(潛在)된 잔존(殘存)에너지를 장기 노인요양보험의 시행(2008.7.1) 등으로 상당한 인력난(人力難)을 겪게 될 노인 재가복지분야(在家福祉分野)에 전문복지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報酬)를 지급하는 준(準)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고령사회의 대처방안(對處方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초 고령사회를 목전(目前)에 둔 현시점(現時點)에서, 연소노인세대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양질(良質)의 엄청난 인적자원을 보유(保有)하게 되어 사회통합(社會統合)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圖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연소노인세대들은 노령화(老齡化)로 치닫고 있는 우리사회의 크게 우려(憂慮)되는 노인문제 해결(解決)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핵심세대로 사회적 불안요인(不安要因)들을 해소(解消)함에 있어서 지대(至大)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연소노인세대들이 사회에서 그들에게 부여(附與)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느냐의 여부(與否)는 ‘세대 간의 화합(和合)으로 일궈낸 사회통합으로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共同體)’를 창출(創出)할 수 있는 가를 가름할 정도로 중차대(重且大)

---

6)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연소노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認識) 과 참여(參與)에 대한 의식실태(意識實態)를 조사 분석(分析)하여 급격히 변화(變化)하고 있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연소노인세대(年少老人世代)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참여(參與)를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로 공여(供與)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범위는 연소노인의 개념 및 노-노 케어 서비스 정의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연소노인의 고령화 사회 및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노-노 케어 서비스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노인복지관련서적, 연구논문,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연소노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의 수가 적어 연소노인을 대표하는 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성인학자 뉴 가르텐(B. Neugarten, 1974)의 역연령에 의한 노인그룹 분류에 따라 연소노인(young-old, 55세 이상-64세 이하)<sup>7)</sup>세대를 한정하였으나, 미국의 사회 환경에서 제시되었던 노인의 세 그룹에 의한 분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함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

7) 홍숙자 전개서. p.58. 재인용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연소노인의 정의

#### 1. 노인의 정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노인(老人)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노인은 대체로 몇 가지 다른 규정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는데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sup>8)</sup>할 수 있으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그것은 역연령(曆年齡)이라는 의미와 노화(老化)라는 의미(신체적, 정신적)를 다각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가장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산술적으로 산출한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분류가 보편적이다. 그 외에 개인의 자각에 의한 정의, 법적인 정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UN에서는 이제까지 노인을 ‘60세’로 보아 왔는데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51년 국제 노년학회(IA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자각과 기능의 정도,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노인이란,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이 노인으로의 전이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신을 통제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으로 정의되고

---

8) 장인협·최성재 (1988). P.44.

9) 이영호 (2005). pp.8-9.

있다.<sup>10)</sup>

브린(L.Breen, 1969)은 노인의 개념에는 적어도 생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인을 ①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sup>11)</sup>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장인협과 최성재의 연구에서는 노인은 ① 생리적 및 생물학적 면에서 퇴하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 온건, 경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법적인 정의로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인자를 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볼 때 노인은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고, 경로연금제도나 각종 경로우대제도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2. 노인의 연령적 구분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하면 출생 이후부터 달력상의 나이로 계산한 만나이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노인으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독일의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5세로 규정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국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과 같은 서유럽 사회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노동력 개념으로 노령선을 역연령으로 65세로 하고 있고, UN

---

10) 서상철 (2004) PP.18-19.

11) 정지영 외(2003). PP.6-7.

12) 이선미 (2004). p.5.

에서도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계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는 65세 이후를 노인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기 전에는 만 60세를 회갑이라 하여 이때부터 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였으나 UN 등의 생산연령인구 개념에 영향을 받아 노인복지법에서 상담·입소, 경로연금, 건강진단, 경로우대 등의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 등의 각종 통계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sup>13)</sup>

역연령에 대한 노인의 정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입법·정책·행정에서 각종 급여의 수급권이나 서비스 이용자격기준을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법규를 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60세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노인복지관은 이용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역연령에 대한 정의가 가장 보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화의 개인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정의로 노화에 대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sup>14)</sup> 따라서 60세 또는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 차이를 무시하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하는 우를 범할 염려가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의 구분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sup>15)</sup>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가. 뉴 가르텐(*B. Neugarten, 1974*)의 미국노인의 연령 구분

1) 연소노인(young-old) : 55-64세로,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

---

13) 박차상 외 (2002). p.19.

14) 서병진 (2007). p.15.

15) 최성재 (2006,5.10 연합뉴스)

으며 그들의 삶과 사회에서 절정기에 있는 노인을 지칭한다.

- 2) 중고령노인(middle-old) : 65-74세로, 퇴직한 사람이 대다수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취미생활을 할 풍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지칭한다.
- 3) 고령노인(old-old) : 75세 이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고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으며 가장 빈곤하며 가장 외롭고 가장 약한 노인이라고 정의하였다.<sup>16)</sup>

#### 나. 최성재의 노인 연령구분

- 1) 연소노인: 65-69세
- 2) 중고령노인: 70-74세
- 3) 고령노인: 75-84세
- 4) 초고령노인: 8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 다. 한국의 노인 연령 구분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역연령인 60세를 전후하여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환갑 연령이나 정년퇴직의 시기, 그리고 조부모가 되는 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1) 전통적으로 60세를 노령에 이른 것으로 축하-회갑
- 2) 국민연금법상 정상 연금 수급 연령을 60세로 규정

우리사회는 보통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세 이전에 사회적 노인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녀 평균수명이 70세에 가까이에 이르고 있고, 이전에 60세(回甲)보다는 70세를 고희(古稀)로 축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4

---

16) 홍숙자 전개서 p.58 재인용

세까지를 연소노인으로, 65세에서 69세까지를 중고령 노인으로, 70세 이상을 고령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17)</sup>

### 3. 연소노인의 정의

성인학자 뉴 가르텐(B. Neugarten, 1974)의 역연령에 따른 미국노인의 구분에 의하면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층을 연소노인으로 구분하며, 이들 세대는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사회에서 절정기에 있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8)</sup> 그에 의하면 “연소노인”은 건강하고 활발하며, 고학력이며, 경제력 있는 그리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노인층으로 이들이 연령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일반적으로 ‘빈곤, 병약, 고독, 무위’라는 특성으로 정형화된 노인들의 이미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9)</sup>

에칠리(Atchley, 1988)는 연소노인세대를 60세이상 75세 미만으로 확장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브로디(Brody, 1977)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최성재교수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소노인의 연령 규정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충분히 건강하며,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명확히 연소노인층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의 보통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세 이전에 사회적 노인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5세에서 65세 미만까지를 연소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20)</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 또는 65세라는 연령으로 노년기가 시작된다고

---

17) 정지영 외 전개서

18) 홍숙자 전개서 p.58 재인용

19) 조성남 외 (1998). p.25.

20) 김경미 (2006). p.5

생각하며 노년기를 심신이 허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는 부정적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노년기는 스스로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분명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기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년기는 사회적 부담만을 지우는 시기만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적 시기일 수도 있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의 근로능력의 향상 및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노인에 대한 공식적 연령에 대한 규정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sup>21)</sup>

본 연구에서는 연소노인을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뉴 가르텐(B. Neugarten, 1974)의 역연령에 따른 노인 구분에 의한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층을 연소노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실버(silver)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용어로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도 강화되면서 사회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열망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뉴 실버세대이다. 기존의 실버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실버세대를 뜻한다.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전후세대이며, NS(nS)세대로 줄여 부르기도 하고, 황금세대(golden age)라고도 한다.

뉴 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는 실버세대와 달리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고, 손자를 돌보며 집안에만 갇혀 있지도 않는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고, 그 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스포츠·여행 등 건강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동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sup>22)</sup>

---

21) 조성남 외 (1998). p.25.

22)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우리나라의 연소노인세대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 조사과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시점 전체인구 49,268,928명중 약9%에 못 미치는 4,413,36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3)</sup>

우리사회의 연소노인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며, 8.15 해방 이후 및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기에 출생해 절대빈곤의 시기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한 특수한 역사적 연령층(historical cohort)이다.<sup>24)</sup> 세계에서 흔치 않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질의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연소노인들은 1960, 70년대 우리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청·장년기를 오로지 직장에서 보내며 자신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앞세우며 식민지 생활의 여파와 전쟁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일벌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맹활약하였던 세대이다.

젊은 시절 ‘산업전사’로 불리면서 가정을 희생하고 일에 매진했던 이들 세대는 최근 IMF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사건들로 인하여,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세대로 조기퇴직을 강요받고 직업에서 타의에 의하여 물러나야 했던<sup>25)</sup> 역동적인 세대이다. 이전세대와는 달리 조직생활과 단절되는 퇴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노년기에 진입하는 최초의 세대이며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어떠한 준거 틀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에 따르는 부양자 역할상실 및 지위변화를 경험하면서 노년생활에도 적응해야 하는 첫세대라 할 수 있다<sup>26)</sup>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 중심적 생존주의가 자녀세대의 개인주의와 상충하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설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직장 은퇴 후 자녀에 의한 노후 부양의 기대를 별로 갖지 못하게 된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소노인세대들은 앞으로의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세대로 우리사회의 현재의 노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3) 각 시·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2007,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24) 장경섭 (1995). pp.138-140.

25) 이가옥·이지영 (2005). pp.96-98.

26) 성미애·옥선화 (2002). p.2.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주도했던 세대로써 그 역량과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장기요양보험시행(2008.7.1)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 노인 복지분야에 투입하여 과도한 노인부양부담으로 인해 겪을 것으로 예견되는 고령 사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2007,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전 국	행정구역 (동읍면)별	5세별 인구	남	여
	총인구	49,268,928	24,691,249	24,577,679
	50-54세	3,385,690	1,703,733	1,681,957
	55-59세	2,457,037	1,221,730	1,235,307
	60-64세	1,956,330	940,375	1,015,955
	65-69세	1,898,373	864,809	1,033,564

출처: 행정안전부 각 시·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sup>27)</sup>

여자 연소노인 세대들은 산업역군의 몫을 다하고 있는 남성노인들의 빈 자리를 채우며, 억척스러운 생활력과 높은 교육열로 가정을 이끌었던 세대들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된 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표 1>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소노인세대는 여자 연소노인들이 2,251,262명<sup>28)</sup>으로 남자연소노인들 2,162,105<sup>29)</sup>명에 비하여 89,157명이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으며, 고령사회에서의 여자 연소노인 세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의 극복 대처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연소노인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9%인 440여만<sup>30)</sup>(4,413,367명) 명의 연소노인층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7) 행정안전부 각 시·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2007, 동읍면/5세별주민등록인구>

28) 여자연소노인(55-59세:1,235,307, 60-64세: 1,015,955명)

29) 남자연소노인(55-59세:1,221,730, 60-64세: 940,375명)

30) 각시·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 (여자연소노인:2,251,262명, 남자연소노인:2,162,105명)  
<2007,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사회적 차원에서 연소노인들에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 변화를 인식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심점으로써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유급자원봉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고령사회에서 연소노인세대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역할부여를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절 현대사회의 변화

### 1. 인구학적 변화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 등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1650년에는 약 5억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850년에는 그 2배가 증가한 약 10억 명이 되었으며 1930년에는 다시 2배가 늘어 20억 명, 1987년에는 50억 명을 돌파하여, 2000년에는 70억 명이 되었다.<sup>31)</sup>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1세기에는 인류가 노화의 비밀을 풀어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영국의 미래재단은 2010년에 태어날 사람의 평균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고, 미국의 과학저널 Scientific American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150세 로 예견하고 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의 오브리드 그레이(aubreyde grey)박사는 2004년 12월 3일 영국의 BBC 방송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1000년까지 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예견이 실현될 경우에 금세기 후반 지구는 고령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sup>32)</sup>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21세기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고, 노인인

---

31) 박 민 (2007) p.5.

32) 상계서. pp 5-6.

구의 증가는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과거의 인구구조의 특징이 ‘베이비 붐’ 과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였다면, 21세기는 ‘인구고령화의 혁명’, ‘역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될 것이다.<sup>33)</sup>

아래의 <표2>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7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4,845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로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져 지난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34)</sup>

『2007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이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전망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모형이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에서,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점차 변모하더니 1990년대 이후로는 종(種)모양의 기형적인 인구모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인구모형의 진행추이는 2025년에 이르면 밑바닥이 좁아진 장방형의 항아리 모양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sup>36)</sup>

<표 2> 연령 3계층별 인구 추이 : 1980~2040년

연 도	인 구 ( 천 명 )				구 성 비 (%)		
	계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1980	38,124	12,951	23,717	1,456	34.0	62.2	3.8
1990	42,869	10,974	29,701	2,195	25.6	69.3	5.1
2000	47,008	9,911	33,702	3,395	21.1	71.7	7.2
2007	48,456	8,734	34,912	4,810	18.0	72.0	9.9
2017	49,332	6,395	36,119	6,818	13.0	73.2	13.8
2026	49,039	5,721	33,099	10,218	11.7	67.5	20.8
2030	48,635	5,525	31,299	11,811	11.4	64.4	24.3
2040	46,343	4,777	26,525	15,041	10.3	57.2	32.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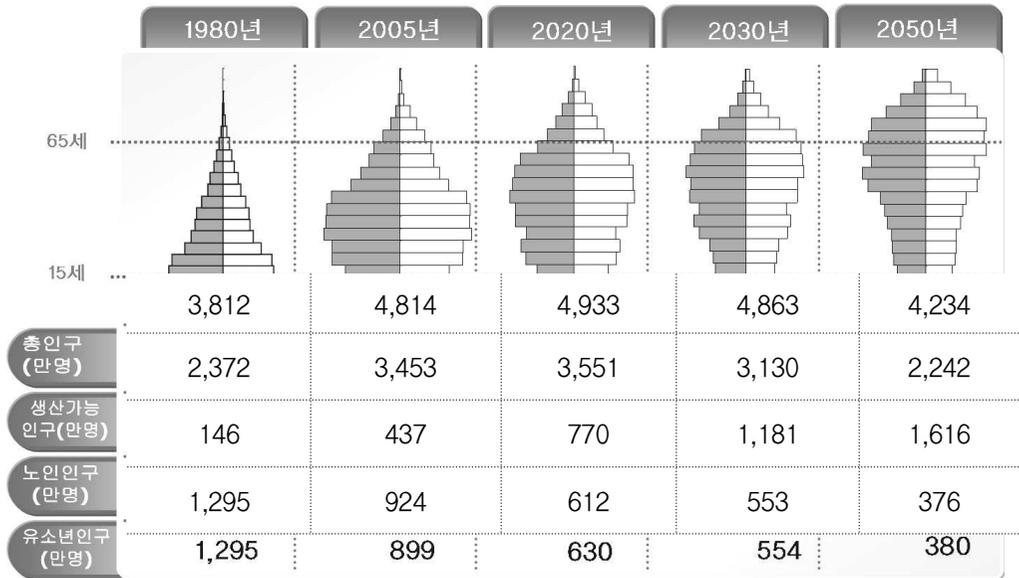
33) 안명옥 (2005). p. 10.

34) 통계청 (2007 한국의 사회지표. 2008). pp 2-3.

35)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2008). p 2.

36) 박 민 전개서. p 8.

<그림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sup>37)</sup>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 2016년(36,190천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18년(49,340천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외국의 예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걸린 기간이 프랑스의 경우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이보다는 훨씬 짧은 24년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18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예상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도 프랑스가 39년, 미국이 21년, 독일이 37년, 비교적 빠른 일본은 12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8년 정도가 경과되면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37)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7) p.3

<표 3>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비 심층분석」,

이렇듯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저 출산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sup>38)</sup>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로 <표3>에서 예견하듯 노년부양비의 심각한 증대 등의 사회문제가 도출될 것이며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야기를 비롯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0.6%에서 2050년 48.9%로 2.4배가 되고 미국은 18.6%에서 34.9%, 일본은 25.2%에서 71.3%, 영국은 24.1%에서 47.3%, 프랑스는 24.5%에서 46.7%로 1.9-2.8배 정도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가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부양비율이 2000년 10.0%에서 2050년 69.4%로 6.9배나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노인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었다.<sup>39)</sup>

38) 김철수 (2006), p.48.

서서히 진행된 선진국의 인구고령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히 밀려들어올 사회적 충격이라 그 파장이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을 비롯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이 포괄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970	1980	1990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5.7	6.1	7.4	8.9	10.1	13.8	15.0	21.7	37.7
노령화지수	7.2	11.2	20.0	28.6	34.3	55.1	67.7	125.9	213.8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 (명)	17.7	16.3	13.5	11.2	9.9	7.3	6.6	4.6	2.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주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 2. 복지환경의 변화

21세기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패러다임의 질적·혁명적 변화를 겪는 대변혁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개인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전제로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추구하는 개인화·인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수명은 크게 연장되고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물질 부’에서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이전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출현은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고, 이는 복지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sup>40)</sup>

39) 오용규 (2007). p8.

40) 고재수 (2004). p.8.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로부터 ‘핵가족화’됨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의 사적 부양체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sup>41)</sup>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노령화 등 가족기능의 약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처하게 되고,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부양이 무력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대사회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에 따른 제반 문제들은 사회적 부양체제로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재가복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방향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복지욕구의 증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민간경영 개념의 도입과 전문성,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sup>42)</sup>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화 시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통합화, 정상화이념에 따른 재가복지의 대두, 복지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자원의 한계 등으로 우리사회는 사회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 가. 복지욕구의 다양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복지·건강에 대한 욕구의 양적확대와 질적 다양화에 따라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복지 수요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 시혜적 복지보다는 권리로서 복지가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

41) 오용규 전개서. p.11.

42) 임지현 (2001) p.20.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의료 및 소득보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노인의 소득·의료보장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대로 인해 가정내·사회적 소외현상 증가로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참여정부의 국민 참여의 확산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sup>43)</sup>

오늘날 변화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과 경제, 사회적 현상에 따른 정책적 경향과 거기에 따른 사회적 욕구들을 고찰해 보면,

첫째,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로 가족의 노인부양 및 자녀 양육 기능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결혼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이나 보육 및 양육의 사회화,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 등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장애인 증가 등으로 인한 재가복지, 가정 봉사원 파견이나 홈 헬퍼(home-helper) 서비스와 같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인간성 상실에 따른 비물질적인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지원봉사와 같은 지역사회차원의 시민적 복지운동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비행, 정신질환, 약물남용, 범죄, 폭력 등 반사회적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산업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과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여섯째, 결혼 출산 후의 계속 근무나 자녀 양육후의 재취업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안정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일곱째, 생활 주기의 변화로 인해 아동 양육시간이 줄어들고 생애 시간 가운데 개인의 자유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

43) 공상길 (2006). p.139.

수 있는 여가 및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의 복지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여덟째, 중산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나 유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sup>44)</sup>

## 나. 지방분권화

우리나라는 1995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예산과 사업을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여 왔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상부에서 지시한 사업만을 수행하여 왔다.<sup>45)</sup>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별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역별로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하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sup>46)</sup> 그러나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는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며, 생활행정의 하나인 복지행정의 수요증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로 인한 욕구수준의 증대는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 실현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7)</sup>

지방자치제에 의해 전개되는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특색을 아우르는 지역에 맞는 지역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

---

44) 송중부 (2000). pp.39-40.

45) 김범수 (2003). p.24

46) 공상길 전게서 p.143.

47) 서병진, 전게서. p.361.

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의 차이, 복지담당인력의 불충분 및 기획능력의 부족, 복지인프라의 차이 등으로 오히려 지자체간 복지격차가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sup>48)</sup>

박병현(2004)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책임의 보존,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개발 등을 들고, 지방정부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전문 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 제공,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등을 들고 있다.<sup>49)</sup>

사회복지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배인명, 2003).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6가지 지방분권의 기준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

48) 조흥식 (2007). p.3.

49) 상계서 pp.3-4. 재인용

셋째,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자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sup>50)</sup>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세 가지 제도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으로 2004년 7월 지방분권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대폭 전환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중심축이 지역(특히 기초정부 수준)으로 이동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2003년 7월)은 지역사회 복지 체계구축을 법의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지역보건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초정부 수준에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선행정 체계의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중심기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도가 도입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정치 과정에의 주민통제권이 강화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협치(Local Governance) 기제로서 작동하고 복지 분야에서 시민참여(민간복지공급자, 복지서비스 소비자, 일반시민을 포함)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제로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은 지방행정과 지방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통제권과 발언권을 강화하였다.<sup>51)</sup>

## 다. 재가복지의 확대

재가복지의 확대가 중시되는 것은 재가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

50) 조흥식 전게서 p.4. 재인용

51) 오용규 전게서. p.19.

이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핵가족화, 가족규모의 축소 등에서 볼 수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나 여성 취업증가등과 같은 취업 구조 변화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해체로 상호부조적인 복지기능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요보호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어 와상노인이나 치매성 노인의 증가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신체장애를 가진 성인이 늘어나고 있다. 즉 질병구조의 변화와 환경악화로 성인병과 후유장애를 가진 요보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sup>52)</sup>

재가복지란 자신이 살아온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자립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형태를 말한다. 즉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복지활동의 한 형태로서 지역주민이 지닌 복지욕구를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에서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적 또는 민간 그리고 양자의 협력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의 계획, 이념 및 실천의 총체를 일컫는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적서비스의 시스템상의 문제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고자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재가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제기되고 있다.<sup>53)</sup>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복지시책이 일부 특정계층의 사회적 요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지역복지는 증대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최근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독립성을 보

---

52) 이수경 (2005). p.9.

53) 장천식 (2005). 발간사

장하고 낮은 비용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시설보호로부터 재가복지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재가보호서비스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며<sup>54)</sup>, 또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이 성장과 발달을 해 온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생활리듬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에 따라 자연스레 부각되어진 재가복지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으로 부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재가복지의 개념

재가복지는 지역사회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영어권에서는 home care 또는 domiciliary care라고 한다. 이러한 재가복지의 개념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재가(在家)’의 개념의 해석에 있다.<sup>55)</sup>

먼저,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함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말한다. 그에 반해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가능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이다.

지역사회보호의 특징은 첫째,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통원 치료기관, 그룹 홈과 같은 보호의 장이 진제된다는 점. 둘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동거하는 직원이 없는 점, 셋째,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이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넷째, 가정에서의 보호 또는 가정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이다.

재가보호(domiciliary care)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공식적 조직

---

54) 송영근 (2006). p.8.

55) 서병진 전개서. p.149.

에 의한 보호와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조직에 재가보호는 가정이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적 환경에서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지역사회보호와는 차이가 있다.

재가복지에 대한 강조는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시설중심에서 벗어나 재가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그러나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역사회보호가 재가복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재가복지는 서구의 지역사회보호의 내용과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의 재가복지는 민간부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늘고 있기는 해도 현재의 재가복지는 여전히 비공식 보호의 성격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57)</sup>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재가복지서비스의 한 영역인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최초로 시행한 1987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복지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92년이고, 199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재가복지’가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같은 시기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제11조에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재분류되었다.<sup>58)</sup> 재가복지 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유사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재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카두신(Alfred Kadushin)은 재가복지서비스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린이의 보호나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강화·보호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6) 김선하 (2004). p.7.

57) 서병진 전개서 p.151.

58) 우수명 (2002). p.8. 재인용

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sup>59)</sup>

텍스터(M. Dexter)와 하버트(W. Harbert)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재가복지서비스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자의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환자, 능력이 없는 자, 편부모의 자녀, 노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sup>60)</sup>

이러한 정의들에 입각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재정리하여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나 자립조건이 결여되어 타인의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형태를 말하며, 사회복지 욕구(need)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sup>61)</sup>

## 2) 재가복지서비스의 유형

보건복지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2006년 운영지침에 의하면 요보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사서비스·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위사, 청소세탁 등
- 나) 간병서비스·안마, 병간호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차량지원, 병원수속 대행, 약품구입, 집안소독 등
- 다) 정서적서비스·말벗, 상담, 여가지도, 행정업무, 취미활동 제공 등
- 라) 의료서비스·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 방문 진료 등

---

59) 천양례 (2003). p.10.재인용

60) 상계서 p.11.재인용

61) 이수경 전계서. p.8.

- 마) 자립지원서비스·탁아, 직업훈련,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 바) 주민교육서비스·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요령 및 방법교육
- 사) 결연서비스·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 재정적 알선지원
- 아)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이상의 사업내용을 모든 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의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sup>62)</sup>

위에서 열거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유형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 현장에는 많은 양질의 인적자원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생활에너지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연소노인세대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우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수료한 후에 복지현장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세대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도래한 고령사회를 피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재가복지 확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계기가 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99.6%가 지역사회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이후 약화된 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지할 사회적 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핵가족 가족 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발생 등으로 인하여<sup>63)</sup> 재가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할

---

62) 이용우 (2007), pp.13-14.

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중시 문화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부양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가복지서비스의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복지 서비스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적인 의도 하에 시설복지에 대체되는 방안으로 재가복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가와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다양화해지고 증가함으로 지금까지 선별적인(selectivism)원리에 의한 시설복지가 보편적인(universalism) 원리에 입각한 재가복지서비스로 변화하여 이는 사회복지 사업에도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첫째, 사회변화에 따라 요보호 대상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가족의 기능과는 달리 부부중심, 자녀 중심으로 가족구조가 간소화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세대,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발생률 증가, 만성질환, 환경오염, 실업, 가족해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이 현재보다 다양해 질 것이며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1차적 가족기능을 보완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의 제 기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 요보호아동, 실직자, 장기질환자 등 요보호대상자의 다양화와 양적인 증가추세는 가족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의 과중과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중심 문화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

63) 박석원 (2005). pp.8-11

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형성하여 가족체계를 예방하고 가족의 제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긴급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발생하거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실직 노숙인, 가출 청소년, 학대아동 등 1차적인 보호기능이 박탈되었거나 결핍되어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대상자들을 선별적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후 치료성격의 대규모 시설보호는 날로 증가하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이나 보호 효과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요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기능별 소규모 보호시설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 이외에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한 재활, 치료, 예방 등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가복지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계층의 공적 부조 대상자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 재가복지서비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의, 식 주 중심의 1차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요보호대상자들에게도 과거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차적 욕구만으로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정서적이며 환경, 문화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는 요보호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sup>64)</sup> 이러한 재가복지는 인간은 누구나 정상적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

---

64) 정무성 (2001), p.17-18.

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재가보호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sup>65)</sup>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에 공헌해야한다는 노인세대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선두에 위치한 연소노인세대를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노인세대로 변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인 연소노인들을 재가복지서비스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 제3절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근자에 우리나라의 노인재가복지실천현장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상하고 있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창출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sup>66)</sup>의 한 유형이다. 이 사업은 건강한 동년배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서비스의 형태로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성격의 일자리에 실비<sup>67)</sup>를 지급하는 유급자원봉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초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sup>68)</sup>

---

65) 송영근 전계서. p .12.

66)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말한다.

- <http://silver.busan.go.kr/share/inc/printpage.html>

67)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에 월 20만원 지급(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7. pp.47-48.

68) <http://cafe.naver.com/japyng/7315>

## 1.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개념

### 가.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정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복지형사업의 한 유형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소외 계층의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sup>69)</sup> 등을 통칭 한다. 즉 노인이 노인을 돕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청소, 간병, 말벗, 세탁, 옷 갈아입히기, 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문제, 고독, 학대, 건강, 가족문제 등 노인문제에 대해 건강한 동년배 노인들이 도움을 요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한다.<sup>70)</sup>

### 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혁명적 수준’<sup>71)</sup>이라 각계에 회자될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도출 될 것이 우려되는 바이다.<sup>72)</sup>

가중되는 노인부양부담은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농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 건강한 노인에 의해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대두되게 되었고, 실비지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69) <http://cafe.daum.net/sunchangda/Miv9/55>

70) <http://cafe.naver.com/japyng/7315>

71) 미국 노인학협회 존 핸드릭스 회장의 한국고령화 현상에 대한 언급

72) <http://cafe.naver.com/oswig/49>

하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老)-노(老) 케어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확대 운용되어진다면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노인부양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노(老)-노(老) 케어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사회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대인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자신감이 고취되고,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어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73)</sup>.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를 이후의 초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케어 서비스의 공급자인 건강한 노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소노인 세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케어를 요하는 노인들의 수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케어 서비스의 범위도 준전문가의 수준을 요하게 될 것이므로 일부의 건강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연소노인들에게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원하는 연소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연소노인들을 노인복지분야의 양질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유형

지자체를 비롯한 시니어클럽, 복지관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유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복지간병도우미 - 실버수호천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건강한 여자노인이 전문 간병교육을

---

73) <http://cafe.naver.com/japyng/7315>

받고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파견되어 목욕, 동행보조, 청소, 세탁 말벗, 반찬 만들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유사한 유형 : 춘천시립노인복지관의 ‘시니어 지킴이’, 원주시립노인복지관의 ‘또래 오래’, 동해시립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 등<sup>74)</sup>

## 2) 노(老)-노(老) 상담센터

상담원으로서 소양을 갖춘 65세 이상의 노인이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노(老)-노(老) 상담원으로 양성되어 노인문제상담, 지역지원연계, 취업지원, 상담센터 홍보활동을 한다. 노(老)-노(老) 상담원들은 문제를 갖고 있는 노인 내담자가 찾아오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sup>75)</sup>

## 3) 농촌형 노(老)-노(老) (이웃사촌 사랑 나눔 품앗이)를 통한

⇒ ‘복지마을’ 만들기

60대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 등 봉사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로 마을별 ‘이웃사촌 실버봉사단’을 조직하여, 마을 안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일상적 점검을 하여 기관(센터)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중간역할을 함으로써 전문 가정 봉사원들의 전문적 서비스와 봉사단 어르신들의 보편적 서비스가 조화를 이뤄 새로운 유형의 나눔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농촌형 복지 자립 마을로 발전할 수 있다.<sup>76)</sup>

## 4) 노(老)-노(老) 홈 케어(home care) 사업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사업

---

74) <http://blog.doum.net/cbbw01/5338498>

75) <http://cafe.naver.com/japyng/7315>

76) <http://cafe.naver.com/jdhks5105/271>

근로능력이 우수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중증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에 기여한다.<sup>77)</sup>

## 2.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2004년부터 추진하였다.<sup>78)</sup>

### 가. 사업목적

- 1)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2)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 가)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나)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 3)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4)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sup>79)</sup>

### 나. 사업근거

- 1)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 가) 제23조 :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

77) <http://cafe.naver.com/oswig/49>

7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07.2.9) p.2.

7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7). p.31.

여야 함

나) 제23조의2 : 노인적합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sup>80)</sup>

#### 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정의

1) 사회공헌형

가) 공익형

(1) 정의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적합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2) 목적

(가) 지자체 고유 업무 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나)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 제공으로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다) 사업종류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지역행정조사,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공공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한함) 지원 등등

(라) 부적합사업

---

8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전계서 p.31.

## 등하교길 단순 교통정리 등

### 나) 교육형

#### (1) 정의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

#### (2) 목적

(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적자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참여노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수요처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3) 사업종류

1-3세대강사파견, 노-노 교육 강사파견, 취미활동 강사파견, 체육(건강)활동 강사파견, 문화재해설, 숲 생태 해설 등<sup>81)</sup>

### 다) 복지형

#### (1) 정의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2) 목적

(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취약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동시 도모

#### (3) 사업종류

---

8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전계서 p.32.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소외계층지원, (노인)가구주거개선, 아동청소년보호(상담·선도활동 등), 문화복지사업 등

(가) 부적합사업

- ① 경로당 파견 단순 중식제공· 청소 서비스 지원 사업
- ② 무급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사례
- ③ 지역내 행사 찬조공연 및 관련 기관 내부행사 활동 82)

2) 인큐베이터형

가) 시장형

(1) 정의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2) 목적

- (가) 수익이 창출되는 경제사회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노후자립심을 배양
- (나) 일정기간(3년)지원 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또는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포함한 국가적 비용 절감 효과

(3) 사업종류

식품 제조·판매, 특산물 제조·판매, 공산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지역영농사업<sup>83)</sup>

3) 민간분야 일자리 알선

---

8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7). p.33.

83) 상계서

## 가) 인력파견형

### (1) 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2) 목적

(가) 수요처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의 노후 생활보장을 지원함

(나) 업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일정기간 교육 지원 후에는 파견 사업단별로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

### (3) 사업종류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sup>84)</sup>

## 3.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의 영역

### 가. 노인자원봉사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실시(2008.7.1) 등으로 노인복지분야 중에서도 재가복지서비스분야에 심각한 인력난이 예견되는 현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

8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전계서 p.34.

## 1)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의 어원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voluntas)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 대상과 영역 및 목적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의 자원봉사란 사람을 도와주는 능동적인 행위로 사회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다. 아울러 자원봉사는 자유와 인간존중의 정신을 배경으로 한 자비의 운동이며, 자원봉사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거나 명백히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작업 외 활동이다.<sup>85)</sup>

##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활동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은 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고취되며 또한 자기만족 또는 자기존경 등과 같은 의식이 고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들 중의 하나로써 여겨진다.

은퇴한 노인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참여의식이 강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여가활동이라는 의미에서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노동과는 반대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sup>86)</sup>

---

85) 강창범 (2006) p.5.

86) 지은구 (2004) pp.75-76.

### 3)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영역

적극적 형태의 노인여가활동으로 인식되는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 가)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봉사이다.

##### (1) 가사보조

생활환경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지원 (청소, 세탁), 식생활지원(생필품 구입, 급식서비스), 난방관리(난로청소, 점화 및 소화, 연탄가스 점검)등

##### (2)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의료 및 재활서비스에는 재활기구사용보조, 병원안내, 간병, 물리치료, 운동, 마사지, 임종간호 등

##### (3) 사회적보호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가정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 봐주기, 장난감수집 및 공급, 장난감 수리병원운영, 아동놀이 지도, 어린이 놀이터 청소 및 관리, 한문교육, 도덕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청소년 상담, 청소년 행사돕기, 소년 소녀가장지원, 학원폭력예방 프로그램 지원, 미혼모 및 불우여성 상담, 윤리·도덕교육, 불우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말벗, 외출 동행 등

#### 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노후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바 그 활동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입소시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노인입소시설에서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예능지도,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지도, 소그룹지도 취미·기술 지도, 놀이친구, 신앙상담 및 생활상담, 이·미용서비스, 일반가정초대 및 생일 축하파티, 외출동행, 거동 불편자를 위한 식사보조, 옷갈아 입기보조, 목욕보조, 산책안내, 병간호, 말벗, 청소 등이 있다.

(2) 복지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전화 상담, 시설의 운영을 돕기 위한 후원 회원모집, 직업지도 및 알선프로그램보조, 시설입소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가정봉사원으로서의 활동, 청소, 취사보조, 세탁, 기계류 고장수리, 사무보조, 운전기사, 자문위원, 시설 및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대변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근린공원 및 환경정화

쓰레기 줍기, 쓰레기 분류 및 관리, 나무심기, 환경오염 조사 및 계몽, 산불감시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4) 농촌 살리기 및 국산품애용 캠페인

대도시에서의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농촌 일손 돕기, 국산품애용 가두캠페인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5) 문화예술

판소리 지도, 미술교육, 서예지도, 도자기 기술지도, 연극 및 춤 지도, 각종 문화행사 지원, 전통문화 전승운동,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 문화교육, 노인합창단의 병원위문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6) 보건 및 의료

병원업무보조, 간병서비스, 임종간호, 환자위문공연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7) 범죄예방 및 법률문제

성폭력 상담·교육 및 계몽, 유해환경조사 및 퇴치 캠페인, 지역 사회 안전보호(자경단), 학교폭력예방 및 치료에 참여, 정책건의, 지역방법대육성, 무료법률상담, 유언 및 유산상속 절차보조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8) 교통 및 안전관리

건널목 교통정리, 지하철 안전 지도원, 각종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정리, 교통단속 감시원, 학생등하교시 사고예방·교통안전지도, 지역의용소방대 육성, 119전화당번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9) 정치 및 사회활동

부정선거 감시, 선거사무소 사무보조, 투표·개표 참관인 활동, 선거인 등록사업 보조, 정당활동, 북한동포 및 중국에 사는 교포 돕기 계몽운동, 부녀회와 공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전통음식바자회 운영, 불량상품 조사 및 고발 등 소비자 보호운동,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87)

#### 4)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와 노인자원봉사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 중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형 일자리의 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사업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중 개인과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의 내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보조나 재활서비스분야의 활동내용 대부분이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사업에 흡수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들에 의해 자원봉사로 시행되고 있던 활동영역에 실비를 지급하는 양상을

---

87) 박재간 (2002). pp.187-189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곧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모습이라 여겨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와 노인자원봉사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인당 월4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바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지위와 자존감 고취를 위해서도 향후에 노(老)-노(老) 케어서비스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사업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업은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연소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실시(2008.7.1) 등으로 노인재가복지 분야에 막대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연소노인세대를 요양요원으로 양성하여 복지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준전문가로서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요원 참여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시행(2008.7.1)되게 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sup>88)</sup>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

88)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 장기요양기관 확충설명회 자료 2008.3).p.10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주 대상이며, ‘수발’은 가까이에서 노인들 돌본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서비스의 내용이 목욕, 간병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적인 서비스 급여를 포함한다.<sup>89)</sup>

##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가) 인구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나) 노인가정의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경감 필요

-(월100-250만원)

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하는 폐해가 양산됨(요양병원 급증)

라) 저 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수발의 한계를 드러냄(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 입소 수 연락두절,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으로 노인학대가 우려수준임.)<sup>90)</sup>

## 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 내용

가) 재가급여

(1)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89) 양옥남 외 (2006). p.382.

90) 보건복지가족부 장기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

- (3)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4)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요양급여

- (1)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2)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다)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sup>91)</sup>

4) 노인 장기요양보험요원 양성

가) 요양보호사의 정의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요양인력이다.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

---

91) 보건복지가족부 전게서

다 기능·지식수준이 강화된 전문요원이다.<sup>92)</sup>

나) 요양보호사 업무

(1) 요양보호사 1급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sup>93)</sup>

5) 연소노인세대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극히 선별적(selective)으로 이루어지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universal)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94)</sup> 이것은 요양대상자인 노인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과 증가일로의 요양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인력의 충분한 증원이 시급히 요구됨을 의미한다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충원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 가

9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요양보호사 및 인프라확충설명회>(2007).p.41.

93)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전개서 pp.41-42.

94)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 장기요양기관 확충설명회 자료 2008.3).p.110.

능한 자격증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피교육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최고 240시간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교육비용으로는 최고 80만 원 이내가 소요될 것으로 적시되었다.<sup>95)</sup> 그러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연소노인들에게는 사회적 차원에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삶의 노하우가 잠재되어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이미 재가복지요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이 내재되어 있는 연소노인세대를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노인복지분야에 저임금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양질의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노인복지분야의 비용절감의 효과로 파급되어질 것이다.

요양을 요하는 노인세대와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연소노인세대들에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연소노인들의 케어서비스는 노인 공경의 표상이 되어 신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부가적인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력들은 그들의 노후를 사회를 위해 공헌한다는 자긍심과 일정한 소득의 확보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진 연소노인들의 자존감이 고취되어 우리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공통분모인 연소노인세대들의 응집력을 도울 것이며, 초 고령사회로 변화되는 사회 환경의 적응을 위한 ‘노인들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그들의 저력에 의해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사회통합의 효과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

95) 보건복지가족부 전개서

## 제4절 선행연구

변순주<sup>96)</sup>의 “노인자원봉사 유급화가 노인 인력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유급인 자원봉사에는 노인들의 참여가 활발하였으며, 순수한 자원봉사의 경우는 참여도가 낮고, 장기간의 유지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정과 보상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유급자원봉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고 제언하고 있다.

지은구<sup>97)</sup>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의 사업성격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를 보면 노인의 자원봉사가 유급 자원봉사로 변질되어버린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원봉사사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안정적 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차원에서 사회적 활동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실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사업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노인세대들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역할인지 및 노-노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분야 특히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활동에 연소노인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

96) 변순주 (2003) pp.39-42

97) 지은구 (2004) pp.80-81

##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 제1절 조사 설계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소노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역할,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연소노인 200명을 선정 하였다.

표본추출의 절차는 연소노인 200명을 임의 표집 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부실기재 등 30부를 제외한 150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설문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 3명이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 뒤, 연소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이후 1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30부가 부실 기재되어 150부만을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최종 분석된 150부의 설문지는 자기식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는 집합조사법으로 100명, 개별면접에 의한 조사에 응한 50명의 연소노인들의 자료가 수집된 것이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김혜경(2008), 박민(2007) 등의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문항을 구성하고, 고령화 사회

의 인식 및 역할,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문항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도출한 설문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총 48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 1) 배경변인(일반적인 특성)

연소노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역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배경변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결혼상태, 건강상태, 자녀수, 주거형태, 가구형태, 직업, 주 생활비 출처 등 15개 문항으로 작성하여 11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 2)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의 노인인지여부, 평균수명, 고령화 사회 및 초 고령사회의 인지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총 14문항으로 하였다.

#### 3) 연소노인으로서의 역할 인식

고령화 사회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연소노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의 종사 의향을 10문항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 4) 노(老)-노(老) 케어서비스에 대한 인식

고령사회의 타개방안으로 재가복지서비스실천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노 케어 서비스의 인지여부와 동참요인 등을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고령화 사회에서 연소노인으로서의 역할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령화사회’ 용어 인지 유무에 따른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 유무의 차이,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활동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 일반적 특성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01	67.3
	여	49	32.7
연령 (무응답=4)	56세 이하	35	24.0
	57세-59세	40	27.4
	60세-62세	41	28.1
	63세 이상	30	20.5
종교 (무응답=19)	기독교	16	12.2
	천주교	6	4.6
	불교	90	68.7
	기타	19	14.5
교육정도	초졸	7	4.7
	중졸	26	17.3
	고졸	76	50.7
	대학	38	25.3
	대학원이상	3	2.0
결혼상태	기혼	139	92.7
	미혼	1	.7
	이혼	3	2.0
	재혼	2	1.3
	사별	5	3.3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15	10.0
	건강한 편이다	120	80.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5	10.0
자녀수 (무응답=2)	1	7	4.7
	2	84	56.8
	3	43	29.1
	4	9	6.1
	5	5	3.4
전체		150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42	28.0	
	연립주택	21	14.0	
	아파트	82	54.7	
	임대주택	4	2.7	
	기타	1	.7	
가구형태	단독가구	116	77.3	
	핵가족	32	21.3	
	대가족	2	1.3	
직업	직업유무 (무응답=3)	예	90	61.2
		아니오	57	38.8
	현재 직업 (전체=90)	자영업	54	60.0
		공무원	3	3.3
		회사원	20	22.2
		전문직	3	3.3
		생산직	5	5.6
		기타	5	5.6
	향후 예상 근무년수 (전체=90)	1-2년 이상	16	17.8
		3-4년 이상	24	26.7
		5-6년 이상	30	33.3
		7-8년 이상	19	21.1
		기타	1	1.1
	월 소득 (전체=9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	10.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4	15.6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	24.4
		200만원 이상	45	50.0
	만족도 (전체=90)	그렇다	39	43.3
		그저 그렇다	41	45.6
		그렇지 않다	10	11.1
	주 생활비 마련방법	월급	68	46.6
		이자 및 임대료	21	14.4
		연금	15	10.3
가족의 지원		23	15.8	
기타		19	13.0	
전체		150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전체 응답자 150명 중 남자가 67.3%, 여자가 32.7%로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은 60세-62세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7-59세 27.4%, 56세 이하 24.0%, 63세 이상 20.5%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종교는 불교 68.7%, 기독교 12.2%, 기타 14.5%, 천주교 4.6%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25.3%, 중졸 17.3%, 초졸 4.7%, 대학원 이상 2.0%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92.7%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기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 3.3%, 이혼 2.0%, 재혼 1.3%, 미혼 0.7%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80.0%, 아주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가 각각 10.0% 순서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건강한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2명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 29.1%, 4명 6.1%, 한 명 4.7%, 5명 3.4%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54.7%, 단독주택 28.0%, 연립주택 14.0%, 임대주택 2.7%, 기타 0.7%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단독가구 77.3%, 핵가족 21.3%, 대가족 1.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현재 직업이 있는 응답자가 61.2%로 직업이 없는 응답자 3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종류는 자영업 60.0%, 회사원 22.2%, 생산직과 기타가 각각 5.6%, 공무원과 전문직이 각각 3.3% 순서로 높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상 근무년수는 5-6년 이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년 이상 26.7%, 7-8년 이상 21.1%, 1-2년 이상 17.8%, 기타 1.1%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원 이상 50.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4.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 45.6%, 만족한다 43.3%, 만족하지 않는다 11.1% 순서로 나타났다. 주 생활비 마련 방법은 월급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가족의 지원 15.8%, 이자 및 임대료 14.4%, 기타 13.0%, 연금 10.3% 순서로 조사되었다.

## 2. 조사결과의 분석

### 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표 6> 노인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8	92	100	2.058 (.151)
		8.0%	92.0%	100.0%	
	여	1	48	49	
		2.0%	98.0%	100.0%	
전체		9	140	149	
		6.0%	94.0%	100.0%	
연령	56세 이하	1	33	34	1.551 (.671)
		2.9%	97.1%	100.0%	
	57세-59세	2	38	40	
		5.0%	95.0%	100.0%	
	60세-62세	3	38	41	
		7.3%	92.7%	100.0%	
	63세 이상	3	27	30	
		10.0%	90.0%	100.0%	
전체		9	136	145	
		6.2%	93.8%	100.0%	
교육 정도	중졸	2	31	33	.184 (.912)
		6.1%	93.9%	100.0%	
	고졸	4	71	75	
		5.3%	94.7%	100.0%	
	대학 이상	3	38	41	
		7.3%	92.7%	100.0%	
전체		9	140	149	
		6.0%	94.0%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p)$
직업	유	5	85	90	.150 (.698)
		5.6%	94.4%	100.0%	
	무	4	52	56	
		7.1%	92.9%	100.0%	
전체		9	137	146	
		6.2%	93.8%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3	20	23	3.454 (.178)
		13.0%	87.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	21	22	
		4.5%	95.5%	100.0%	
	200만원 이상	1	44	45	
		2.2%	97.8%	100.0%	
전체		5	85	90	
		5.6%	94.4%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을 노인으로 인지하는 응답자는 6.0%, 나머지 94.0%는 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지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지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노인인정연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

		60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	5	58	37	100	1.622 (.444)
		5.0%	58.0%	37.0%	100.0%	
	여	3	33	13	49	
		6.1%	67.3%	26.5%	100.0%	
전체		8	91	50	149	
		5.4%	61.1%	33.6%	100.0%	

		60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전체	$\chi^2(p)$
연령	56세 이하	2	27	6	35	7.973 (.240)
		5.7%	77.1%	17.1%	100.0%	
	57세-59세	1	22	17	40	
		2.5%	55.0%	42.5%	100.0%	
	60세-62세	2	25	14	41	
		4.9%	61.0%	34.1%	100.0%	
	63세 이상	2	14	13	29	
		6.9%	48.3%	44.8%	100.0%	
전체		7	88	50	145	
		4.8%	60.7%	34.5%	100.0%	
교육 정도	중졸	3	25	4	32	11.225* (.024)
		9.4%	78.1%	12.5%	100.0%	
	고졸	4	46	26	76	
		5.3%	60.5%	34.2%	100.0%	
대학 이상	1	20	20	41		
	2.4%	48.8%	48.8%	100.0%		
전체		8	91	50	149	
		5.4%	61.1%	33.6%	100.0%	
직업	유	6	51	33	90	1.987 (.370)
		6.7%	56.7%	36.7%	100.0%	
	무	2	38	16	56	
3.6%		67.9%	28.6%	100.0%		
전체		8	89	49	146	
		5.5%	61.0%	33.6%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2	15	6	23	4.094 (.393)
		8.7%	65.2%	26.1%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	14	6	22	
		9.1%	63.6%	27.3%	100.0%	
200만원 이상	2	22	21	45		
	4.4%	48.9%	46.7%	100.0%		
전체		6	51	33	90	
		6.7%	56.7%	36.7%	100.0%	

\*  $p < 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정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인정연령은 70세 이상 61.1%, 75세 이상 33.6%, 60세 이상 5.4%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인정연령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과 고졸의 경우 70세 이상이 각각 78.1%,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의 경우 70세 이상과 75세 이상이 각각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인정연령의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8> 평균수명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약68-70세	약 73세	약 75세	약 78세	약80-82세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	9	12	17	36	27	0	101	14.565* (.012)
		8.9%	11.9%	16.8%	35.6%	26.7%	.0%	100.0%	
	여	12	7	8	6	15	1	49	
		24.5%	14.3%	16.3%	12.2%	30.6%	2.0%	100.0%	
전체		21	19	25	42	42	1	150	
		14.0%	12.7%	16.7%	28.0%	28.0%	.7%	100.0%	
연령	56세 이하	6	4	3	7	15	0	35	14.352 (.499)
		17.1%	11.4%	8.6%	20.0%	42.9%	.0%	100.0%	
	57세-59세	5	6	9	8	12	0	40	
		12.5%	15.0%	22.5%	20.0%	30.0%	.0%	100.0%	
	60세-62세	6	4	6	15	9	1	41	
		14.6%	9.8%	14.6%	36.6%	22.0%	2.4%	100.0%	
	63세 이상	4	5	5	11	5	0	30	
		13.3%	16.7%	16.7%	36.7%	16.7%	.0%	100.0%	
전체		21	19	23	41	41	1	146	
		14.4%	13.0%	15.8%	28.1%	28.1%	.7%	100.0%	

		약68-70세	약 73세	약 75세	약 78세	약80-82세	기타	전체	$\chi^2(p)$
교육 정 도	중졸	4	3	4	8	14	0	33	15.365 (.119)
		12.1%	9.1%	12.1%	24.2%	42.4%	.0%	100.0%	
	고졸	14	11	12	16	22	1	76	
		18.4%	14.5%	15.8%	21.1%	28.9%	1.3%	100.0%	
	대학 이상	3	5	9	18	6	0	41	
		7.3%	12.2%	22.0%	43.9%	14.6%	.0%	100.0%	
전체		21	19	25	42	42	1	150	
		14.0%	12.7%	16.7%	28.0%	28.0%	.7%	100.0%	
직 업	유	10	13	16	25	26	0	90	3.648 (.601)
		11.1%	14.4%	17.8%	27.8%	28.9%	.0%	100.0%	
	무	10	5	9	16	16	1	57	
		17.5%	8.8%	15.8%	28.1%	28.1%	1.8%	100.0%	
전체		20	18	25	41	42	1	147	
		13.6%	12.2%	17.0%	27.9%	28.6%	.7%	100.0%	
월 소 득	150만원 미만	6	6	2	3	6	0	23	26.772 ** (.001)
		26.1%	26.1%	8.7%	13.0%	26.1%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	4	1	4	11	0	22	
		9.1%	18.2%	4.5%	18.2%	50.0%	.0%	100.0%	
	200만원 이상	2	3	13	18	9	0	45	
		4.4%	6.7%	28.9%	40.0%	20.0%	.0%	100.0%	
전체		10	13	16	25	26	0	90	
		11.1%	14.4%	17.8%	27.8%	28.9%	.0%	100.0%	

\* p<0.05,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수명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8세와 약 80-82세를 각각 28.0%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약 75세 16.7%, 약 68-70세 14.0%, 약 73세 12.7%, 기타 0.7%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과 월 소득에 따른 평균수명인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약 78세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약 80-82세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의 경우 약 68-70세와 약 73세, 약 80-82세가 각각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약 80-82세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의 경우 약 78세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표 9> 여성 평균수명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약70-73세	약 75세	약 78세	약 80세	약 82세	기타	전체	$X^2(p)$
성별	남	15	4	16	28	38	0	101	10.163 (.071)
		14.9%	4.0%	15.8%	27.7%	37.6%	.0%	100.0%	
여	14	5	6	12	11	1	49		
		28.6%	10.2%	12.2%	24.5%	22.4%	2.0%	100.0%	
전체		29	9	22	40	49	1	150	
		19.3%	6.0%	14.7%	26.7%	32.7%	.7%	100.0%	
연령	56세 이하	6	4	2	5	18	0	35	16.184 (.370)
		17.1%	11.4%	5.7%	14.3%	51.4%	.0%	100.0%	
	57세-59세	9	2	7	13	9	0	40	
		22.5%	5.0%	17.5%	32.5%	22.5%	.0%	100.0%	
	60세-62세	7	2	8	12	11	1	41	
		17.1%	4.9%	19.5%	29.3%	26.8%	2.4%	100.0%	
	63세 이상	6	1	4	9	10	0	30	
		20.0%	3.3%	13.3%	30.0%	33.3%	.0%	100.0%	
전체		28	9	21	39	48	1	146	
		19.2%	6.2%	14.4%	26.7%	32.9%	.7%	100.0%	

		약70-73세	약 75세	약 78세	약 80세	약 82세	기타	전체	$\chi^2(p)$
교육 정도	중졸	6	0	4	9	14	0	33	7.169 (.709)
		18.2%	.0%	12.1%	27.3%	42.4%	.0%	100.0%	
	고졸	16	6	9	21	23	1	76	
		21.1%	7.9%	11.8%	27.6%	30.3%	1.3%	100.0%	
	대학 이상	7	3	9	10	12	0	41	
		17.1%	7.3%	22.0%	24.4%	29.3%	.0%	100.0%	
전체		29	9	22	40	49	1	150	
		19.3%	6.0%	14.7%	26.7%	32.7%	.7%	100.0%	
직업	유	17	6	17	25	25	0	90	5.386 (.371)
		18.9%	6.7%	18.9%	27.8%	27.8%	.0%	100.0%	
	무	11	3	5	15	22	1	57	
		19.3%	5.3%	8.8%	26.3%	38.6%	1.8%	100.0%	
전체		28	9	22	40	47	1	147	
		19.0%	6.1%	15.0%	27.2%	32.0%	.7%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9	3	2	5	4	0	23	22.376 ** (.004)
		39.1%	13.0%	8.7%	21.7%	17.4%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5	1	1	5	10	0	22	
		22.7%	4.5%	4.5%	22.7%	45.5%	.0%	100.0%	
	200만원 이상	3	2	14	15	11	0	45	
		6.7%	4.4%	31.1%	33.3%	24.4%	.0%	100.0%	
전체		17	6	17	25	25	0	90	
		18.9%	6.7%	18.9%	27.8%	27.8%	.0%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평균수명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82세 32.7%, 약 80세 26.7%, 약 70-73세 19.3%, 약 78세 14.7%, 약 75세 6.0%, 기타 0.7%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일

반적 특성중 월 소득에 따른 여성 평균수명인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의 경우 약 70-73세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약 82세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의 경우 약 80세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표 10> 남성 평균수명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약 68세	약 70세	약 73세	약 75세	약 78세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	8 7.9%	8 7.9%	29 28.7%	33 32.7%	23 22.8%	101 100.0%	16.394 ** (.003)
	여	7 14.3%	12 24.5%	3 6.1%	14 28.6%	13 26.5%	49 100.0%	
전체		15 10.0%	20 13.3%	32 21.3%	47 31.3%	36 24.0%	150 100.0%	
연령	56세 이하	5 14.3%	5 14.3%	4 11.4%	5 14.3%	16 45.7%	35 100.0%	21.181* (.048)
		3 7.5%	6 15.0%	6 15.0%	15 37.5%	10 25.0%	40 100.0%	
	60세-62세	3 7.3%	6 14.6%	13 31.7%	12 29.3%	7 17.1%	41 100.0%	
		4 13.3%	3 10.0%	9 30.0%	11 36.7%	3 10.0%	30 100.0%	
전체		15 10.3%	20 13.7%	32 21.9%	43 29.5%	36 24.7%	146 100.0%	
교육정도	중졸	2 6.1%	3 9.1%	5 15.2%	13 39.4%	10 30.3%	33 100.0%	20.673 ** (.008)
		9 11.8%	13 17.1%	9 11.8%	24 31.6%	21 27.6%	76 100.0%	
	대학 이상	4 9.8%	4 9.8%	18 43.9%	10 24.4%	5 12.2%	41 100.0%	
		15 10.0%	20 13.3%	32 21.3%	47 31.3%	36 24.0%	150 100.0%	
전체		15 10.0%	20 13.3%	32 21.3%	47 31.3%	36 24.0%	150 100.0%	

		약 68세	약 70세	약 73세	약 75세	약 78세 이상	전체	$\chi^2(p)$
직업	유	10	11	21	24	24	90	2.831 (.587)
		11.1%	12.2%	23.3%	26.7%	26.7%	100.0%	
	무	4	9	11	21	12	57	
		7.0%	15.8%	19.3%	36.8%	21.1%	100.0%	
전체		14	20	32	45	36	147	
		9.5%	13.6%	21.8%	30.6%	24.5%	100.0%	
월소득	150만원 미만	6	4	1	5	7	23	31.946 *** (.000)
		26.1%	17.4%	4.3%	21.7%	30.4%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	5	0	6	9	22	
		9.1%	22.7%	.0%	27.3%	40.9%	100.0%	
	200만원 이상	2	2	20	13	8	45	
4.4%		4.4%	44.4%	28.9%	17.8%	100.0%		
전체		10	11	21	24	24	90	
		11.1%	12.2%	23.3%	26.7%	26.7%	10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 평균수명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5세 31.3%, 약 78세 이상 24.0%, 약 73세 21.3%, 약 70세 13.3%, 약 68세 10.0%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월 소득에 따른 남성 평균수명인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약 75세가 32.7%, 약 73세 28.7% 순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약 75세 28.6%, 약 78세 이상 26.5% 순서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연령은 56세 이하의 경우 약 78세 이상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7-59세와 63세 이상의 경우 약 75세가 각각 37.5%,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62세의 경우 약 73세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교육정도는 중졸과 고졸의 경우 약 75세가 각각 39.4%,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의 경우 약 73세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과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약 78세 이상

이 각각 30.4%,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의 경우 약 73세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표 11> 고령화 사회 용어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101	0	101	4.178* (.041)
		100.0%	.0%	100.0%	
	여	47	2	49	
		95.9%	4.1%	100.0%	
전체		148	2	150	
		98.7%	1.3%	100.0%	
연령	56세 이하	35	0	35	1.628 (.653)
		100.0%	.0%	100.0%	
	57세-59세	39	1	40	
		97.5%	2.5%	100.0%	
	60세-62세	40	1	41	
		97.6%	2.4%	100.0%	
	63세 이상	30	0	30	
		100.0%	.0%	100.0%	
전체		144	2	146	
		98.6%	1.4%	100.0%	
교육 정도	중졸	32	1	33	1.277 (.528)
		97.0%	3.0%	100.0%	
	고졸	75	1	76	
		98.7%	1.3%	100.0%	
	대학 이상	41	0	41	
		100.0%	.0%	100.0%	
전체		148	2	150	
		98.7%	1.3%	100.0%	
직업	유	89	1	90	.108 (.743)
		98.9%	1.1%	100.0%	
	무	56	1	57	
		98.2%	1.8%	100.0%	
전체		145	2	147	
		98.6%	1.4%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p)$
월 소득	150만원 미만	23	0	23	1.011 (.603)
		100.0%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2	0	22	
		100.0%	.0%	100.0%	
	200만원 이상	44	1	45	
		97.8%	2.2%	100.0%	
전체		89	1	90	
		98.9%	1.1%	100.0%	

\*  $p < 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령화 사회 용어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용어인지는 98.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에 따른 고령화 사회 용어인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100.0% 용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95.9%로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12>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96	5	101	.657 (.418)
		95.0%	5.0%	100.0%	
	여	46	1	47	
		97.9%	2.1%	100.0%	
전체		142	6	148	
		95.9%	4.1%	100.0%	
연령	56세 이하	34	1	35	5.114 (.164)
		97.1%	2.9%	100.0%	
	57세-59세	38	1	39	
		97.4%	2.6%	100.0%	
	60세-62세	36	4	40	
		90.0%	10.0%	100.0%	
	63세 이상	30	0	30	
		100.0%	.0%	100.0%	
전체		138	6	144	
		95.8%	4.2%	100.0%	
교육 정도	중졸	31	1	32	3.120 (.210)
		96.9%	3.1%	100.0%	
	고졸	70	5	75	
		93.3%	6.7%	100.0%	
	대학 이상	41	0	41	
		100.0%	.0%	100.0%	
전체		142	6	148	
		95.9%	4.1%	100.0%	
직업	유	85	4	89	.074 (.786)
		95.5%	4.5%	100.0%	
	무	54	2	56	
		96.4%	3.6%	100.0%	
전체		139	6	145	
		95.9%	4.1%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22	1	23	1.590 (.452)
		95.7%	4.3%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	2	22	
		90.9%	9.1%	100.0%	
	200만원 이상	43	1	44	
		97.7%	2.3%	100.0%	
전체		85	4	89	
		95.5%	4.5%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인지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인지여부는 응답자의 95.9%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였으며, 4.1%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인지여부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인지여부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진입년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	5	44	33	12	2	96	3.581 (.466)
		5.2%	45.8%	34.4%	12.5%	2.1%	100.0%	
	여	3	27	13	2	1	46	
		6.5%	58.7%	28.3%	4.3%	2.2%	100.0%	
전체		8	71	46	14	3	142	
		5.6%	50.0%	32.4%	9.9%	2.1%	100.0%	
연령	56세 이하	2	22	7	2	1	34	11.722 (.468)
		5.9%	64.7%	20.6%	5.9%	2.9%	100.0%	
	57세-59세	2	22	12	2	0	38	
		5.3%	57.9%	31.6%	5.3%	.0%	100.0%	
	60세-62세	2	15	13	4	2	36	
		5.6%	41.7%	36.1%	11.1%	5.6%	100.0%	
63세 이상	1	12	12	5	0	30		
	3.3%	40.0%	40.0%	16.7%	.0%	100.0%		
전체		7	71	44	13	3	138	
		5.1%	51.4%	31.9%	9.4%	2.2%	100.0%	
교육 정도	중졸	0	17	9	3	2	31	16.499* (.036)
		.0%	54.8%	29.0%	9.7%	6.5%	100.0%	
	고졸	5	41	16	7	1	70	
		7.1%	58.6%	22.9%	10.0%	1.4%	100.0%	
	대학 이상	3	13	21	4	0	41	
		7.3%	31.7%	51.2%	9.8%	.0%	100.0%	
전체		8	71	46	14	3	142	
		5.6%	50.0%	32.4%	9.9%	2.1%	100.0%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기타	전체	$\chi^2(p)$
직업	유	7	39	29	8	2	85	2.953 (.566)
		8.2%	45.9%	34.1%	9.4%	2.4%	100.0%	
	무	1	29	17	6	1	54	
		1.9%	53.7%	31.5%	11.1%	1.9%	100.0%	
전체		8	68	46	14	3	139	
		5.8%	48.9%	33.1%	10.1%	2.2%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5	13	3	0	1	22	28.746 *** (.000)
		22.7%	59.1%	13.6%	.0%	4.5%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	14	5	0	0	20	
		5.0%	70.0%	25.0%	.0%	.0%	100.0%	
200만원 이상	1	12	21	8	1	43		
	2.3%	27.9%	48.8%	18.6%	2.3%	100.0%		
전체		7	39	29	8	2	85	
		8.2%	45.9%	34.1%	9.4%	2.4%	100.0%	

\*  $p < 0.05$ , \*\*\*  $p < 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진입년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 50.0%, 2005년 32.4%, 2007년 9.9%, 1995년 5.6%, 기타 2.1%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와 월 소득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진입년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과 고졸의 경우 2000년이 각각 54.8%,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의 경우 2005년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과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2000년이 각각 59.1%,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의 경우 2005년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표 14>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약5-7%	약8.5%	약10%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	28	40	30	2	100	8.374* (.039)
		28.0%	40.0%	30.0%	2.0%	100.0%	
	여	17	8	21	2	48	
		35.4%	16.7%	43.8%	4.2%	100.0%	
전체		45	48	51	4	148	
		30.4%	32.4%	34.5%	2.7%	100.0%	
연령	56세 이하	10	6	18	1	35	26.082 ** (.002)
		28.6%	17.1%	51.4%	2.9%	100.0%	
	57세-59세	7	12	20	0	39	
		17.9%	30.8%	51.3%	.0%	100.0%	
	60세-62세	16	14	7	3	40	
		40.0%	35.0%	17.5%	7.5%	100.0%	
	63세 이상	10	15	5	0	30	
		33.3%	50.0%	16.7%	.0%	100.0%	
전체		43	47	50	4	144	
		29.9%	32.6%	34.7%	2.8%	100.0%	
교육정도	중졸	7	6	16	3	32	14.712* (.023)
		21.9%	18.8%	50.0%	9.4%	100.0%	
	고졸	26	24	24	1	75	
		34.7%	32.0%	32.0%	1.3%	100.0%	
	대학 이상	12	18	11	0	41	
		29.3%	43.9%	26.8%	.0%	100.0%	
전체		45	48	51	4	148	
		30.4%	32.4%	34.5%	2.7%	100.0%	
직업	유	24	32	30	3	89	1.746 (.627)
		27.0%	36.0%	33.7%	3.4%	100.0%	
	무	20	16	19	1	56	
		35.7%	28.6%	33.9%	1.8%	100.0%	
전체		44	48	49	4	145	
		30.3%	33.1%	33.8%	2.8%	100.0%	
월소득	150만원 미만	10	4	8	1	23	10.575 (.102)
		43.5%	17.4%	34.8%	4.3%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7	6	8	0	21	
		33.3%	28.6%	38.1%	.0%	100.0%	
	200만원 이상	7	22	14	2	45	
		15.6%	48.9%	31.1%	4.4%	100.0%	
전체		24	32	30	3	89	
		27.0%	36.0%	33.7%	3.4%	100.0%	

\* p<0.05,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0% 34.5%, 약 8.5% 32.4%, 약 5-7% 30.4%, 기타 2.7%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과 연령, 교육 정도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약 8.5%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약 10%가 43.8%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연령은 56세 이하와 57-59세의 경우 약 10%가 각각 51.4%,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62세의 경우 약 5-7%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3세 이상의 경우 약 8.5%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약 10%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의 경우 약 5-7%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이상의 경우 약 8.5%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15> 초 고령사회 용어 인지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92	9	101	17.305 *** (.000)
		91.1%	8.9%	100.0%	
	여	31	18	49	
		63.3%	36.7%	100.0%	
전체		123	27	150	
		82.0%	18.0%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
연령	56세 이하	26	9	35	4.849 (.183)
		74.3%	25.7%	100.0%	
	57세-59세	30	10	40	
		75.0%	25.0%	100.0%	
	60세-62세	36	5	41	
		87.8%	12.2%	100.0%	
	63세 이상	27	3	30	
		90.0%	10.0%	100.0%	
전체		119	27	146	
		81.5%	18.5%	100.0%	
교육 정도	중졸	19	14	33	22.379 *** (.000)
		57.6%	42.4%	100.0%	
	고졸	63	13	76	
		82.9%	17.1%	100.0%	
	대학 이상	41	0	41	
		100.0%	.0%	100.0%	
전체		123	27	150	
		82.0%	18.0%	100.0%	
직업	유	74	16	90	.098 (.755)
		82.2%	17.8%	100.0%	
	무	48	9	57	
		84.2%	15.8%	100.0%	
전체		122	25	147	
		83.0%	17.0%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8	5	23	2.972 (.226)
		78.3%	21.7%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6	6	22	
		72.7%	27.3%	100.0%	
	200만원 이상	40	5	45	
		88.9%	11.1%	100.0%	
전체		74	16	90	
		82.2%	17.8%	100.0%	

\*\*\* p<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 용어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용어 인지도는 82.0%이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과 교육정도에 따른 초 고령사회 용어 인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91.1%가 용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63.3%가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57.6%, 고졸의 경우 82.9%, 대학 이상의 경우 100.0%로 용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용어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표 16> 초 고령사회 진입 인지여부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91	1	92	.663 (.415)
		98.9%	1.1%	100.0%	
	여	30	1	31	
		96.8%	3.2%	100.0%	
전체		121	2	123	
		98.4%	1.6%	100.0%	
연령	56세 이하	26	0	26	1.664 (.645)
		100.0%	.0%	100.0%	
	57세-59세	29	1	30	
		96.7%	3.3%	100.0%	
	60세-62세	35	1	36	
		97.2%	2.8%	100.0%	
	63세 이상	27	0	27	
		100.0%	.0%	100.0%	
전체		117	2	119	
		98.3%	1.7%	100.0%	
교육 정도	중졸	18	1	19	2.250 (.325)
		94.7%	5.3%	100.0%	
	고졸	62	1	63	
		98.4%	1.6%	100.0%	
	대학 이상	41	0	41	
		100.0%	.0%	100.0%	
전체		121	2	123	
		98.4%	1.6%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
직업	유	74	0	74	3.135 (.077)
		100.0%	.0%	100.0%	
	무	46	2	48	
		95.8%	4.2%	100.0%	
전체		120	2	122	
		98.4%	1.6%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8	0	18	-
		100.0%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6	0	16	
		100.0%	.0%	100.0%	
	200만원 이상	40	0	40	
		100.0%	.0%	100.0%	
전체		74	0	74	
		100.0%	.0%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 진입 인지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98.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6%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 진입 인지여부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 진입 인지여부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우리나라의 초 고령사회 진입년도 인식의 차이

		약2015년	약2020년	약2025년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	79	9	4	92	5.239 (.073)
		85.9%	9.8%	4.3%	100.0%	
	여	22	4	5	31	
		71.0%	12.9%	16.1%	100.0%	
전체		101	13	9	123	
		82.1%	10.6%	7.3%	100.0%	
연령	56세 이하	25	1	0	26	9.589 (.143)
		96.2%	3.8%	.0%	100.0%	
	57세-59세	26	2	2	30	
		86.7%	6.7%	6.7%	100.0%	
	60세-62세	25	7	4	36	
		69.4%	19.4%	11.1%	100.0%	
	63세 이상	24	2	1	27	
		88.9%	7.4%	3.7%	100.0%	
전체		100	12	7	119	
		84.0%	10.1%	5.9%	100.0%	
교육 정도	중졸	15	0	4	19	16.471* * (.002)
		78.9%	.0%	21.1%	100.0%	
	고졸	47	12	4	63	
		74.6%	19.0%	6.3%	100.0%	
	대학 이상	39	1	1	41	
		95.1%	2.4%	2.4%	100.0%	
전체		101	13	9	123	
		82.1%	10.6%	7.3%	100.0%	
직업	유	63	7	4	74	1.474 (.479)
		85.1%	9.5%	5.4%	100.0%	
	무	37	6	5	48	
		77.1%	12.5%	10.4%	100.0%	
전체		100	13	9	122	
		82.0%	10.7%	7.4%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4	2	2	18	4.480 (.345)
		77.8%	11.1%	11.1%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6	0	0	16	
		100.0%	.0%	.0%	100.0%	
	200만원 이상	33	5	2	40	
		82.5%	12.5%	5.0%	100.0%	
전체		63	7	4	74	
		85.1%	9.5%	5.4%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초 고령사회 진입년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2015년이 82.1%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2020년 10.6%, 2025년 이상 7.3% 순서로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초 고령사회 진입년도 인식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 고졸, 대학 이상 모두 약 2015년이 각각 78.9%, 74.6%,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졸의 경우 약 2025년 이상이 21.1%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의 경우 약 2020년이 19.0%로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표 18> 초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제적 문제	세대 간의 갈등문제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	79	11	2	92	.833 (.659)
		85.9%	12.0%	2.2%	100.0%	
	여	28	3	0	31	
		90.3%	9.7%	.0%	100.0%	
전체		107	14	2	123	
		87.0%	11.4%	1.6%	100.0%	
연령	56세 이하	26	0	0	26	7.755 (.257)
		100.0%	.0%	.0%	100.0%	
	57세-59세	26	3	1	30	
		86.7%	10.0%	3.3%	100.0%	
	60세-62세	28	7	1	36	
		77.8%	19.4%	2.8%	100.0%	
63세 이상	24	3	0	27		
		88.9%	11.1%	.0%	100.0%	
전체		104	13	2	119	
		87.4%	10.9%	1.7%	100.0%	
교육 정 도	중졸	16	3	0	19	3.149 (.533)
		84.2%	15.8%	.0%	100.0%	
	고졸	53	8	2	63	
		84.1%	12.7%	3.2%	100.0%	
	대학 이상	38	3	0	41	
		92.7%	7.3%	.0%	100.0%	
전체		107	14	2	123	
		87.0%	11.4%	1.6%	100.0%	

		경제적 문제	세대 간의 갈등문제	기타	전체	$\chi^2(p)$
직업	유	65	7	2	74	1.983 (.371)
		87.8%	9.5%	2.7%	100.0%	
	무	41	7	0	48	
		85.4%	14.6%	.0%	100.0%	
전체		106	14	2	122	
		86.9%	11.5%	1.6%	100.0%	
월소득	150만원 미만	14	4	0	18	6.953 (.138)
		77.8%	22.2%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6	0	0	16	
		100.0%	.0%	.0%	100.0%	
200만원 이상	35	3	2	40		
	87.5%	7.5%	5.0%	100.0%		
전체		65	7	2	74	
		87.8%	9.5%	2.7%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87.0%로 가장 많았고, 세대 간의 갈등문제 11.4%, 기타 1.6% 순서로 많았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고령화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 1) 고령화 사회에서 연소노인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인식

<표 19> 모든 노인이 노인복지 대상임에 대한 인지여부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93	8	101	3.583 (.058)
		92.1%	7.9%	100.0%	
	여	40	9	49	
		81.6%	18.4%	100.0%	
전체		133	17	150	
		88.7%	11.3%	100.0%	
연령	56세 이하	33	2	35	1.664 (.645)
		94.3%	5.7%	100.0%	
	57세-59세	35	5	40	
		87.5%	12.5%	100.0%	
	60세-62세	35	6	41	
		85.4%	14.6%	100.0%	
	63세 이상	26	4	30	
		86.7%	13.3%	100.0%	
전체		129	17	146	
		88.4%	11.6%	100.0%	
교육 정도	중졸	26	7	33	6.452* (.040)
		78.8%	21.2%	100.0%	
	고졸	67	9	76	
		88.2%	11.8%	100.0%	
	대학 이상	40	1	41	
		97.6%	2.4%	100.0%	
전체		133	17	150	
		88.7%	11.3%	100.0%	
직업	유	82	8	90	.438 (.508)
		91.1%	8.9%	100.0%	
	무	50	7	57	
		87.7%	12.3%	100.0%	
전체		132	15	147	
		89.8%	10.2%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p)$
월 소득	150만원 미만	20	3	23	2.200 (.333)
		87.0%	13.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9	3	22	
		86.4%	13.6%	100.0%	
	200만원 이상	43	2	45	
		95.6%	4.4%	100.0%	
전체		82	8	90	
		91.1%	8.9%	100.0%	

\*  $p < 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 대상 인지 여부의 차이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8.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1.3%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 정도에 따른 노인복지 대상 인지 여부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78.8%, 고졸의 경우 88.2%, 대학 이상의 경우 97.6%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복지 대상 인지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20> 노인복지 종사에 대한 의향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67	26	93	1.639 (.200)
		72.0%	28.0%	100.0%	
	여	33	7	40	
		82.5%	17.5%	100.0%	
전체		100	33	133	
		75.2%	24.8%	100.0%	
연령	56세 이하	19	14	33	10.353* (.016)
		57.6%	42.4%	100.0%	
	57세-59세	25	10	35	
		71.4%	28.6%	100.0%	
	60세-62세	31	4	35	
		88.6%	11.4%	100.0%	
	63세 이상	22	4	26	
		84.6%	15.4%	100.0%	
전체		97	32	129	
		75.2%	24.8%	100.0%	
교육 정도	중졸	18	8	26	4.657 (.097)
		69.2%	30.8%	100.0%	
	고졸	47	20	67	
		70.1%	29.9%	100.0%	
	대학 이상	35	5	40	
		87.5%	12.5%	100.0%	
전체		100	33	133	
		75.2%	24.8%	100.0%	
직업	유	60	22	82	.789 (.374)
		73.2%	26.8%	100.0%	
	무	40	10	50	
		80.0%	20.0%	100.0%	
전체		100	32	132	
		75.8%	24.2%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5	5	20	5.599 (.061)
		75.0%	25.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0	9	19	
		52.6%	47.4%	100.0%	
	200만원 이상	35	8	43	
		81.4%	18.6%	100.0%	
전체		60	22	82	
		73.2%	26.8%	100.0%	

\*  $p < 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 종사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5.2%는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4.8%는 종사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노인복지 종사의향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56세 이하의 경우 57.6%, 57-59세의 경우 71.4%, 60-62세의 경우 88.6%, 63세 이상의 경우 84.6%가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노인복지 종사의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21> 노인복지 종사분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

		요양 보호사	노인 돌보미	가정 봉사원	노인 상담원	기타	전체	$\chi^2(p)$
성 별	남	6	20	4	36	1	67	15.374 ** (.004)
		9.0%	29.9%	6.0%	53.7%	1.5%	100.0%	
	여	2	7	11	11	2	33	
		6.1%	21.2%	33.3%	33.3%	6.1%	100.0%	
전체		8	27	15	47	3	100	
		8.0%	27.0%	15.0%	47.0%	3.0%	100.0%	
연 령	56세 이하	0	5	5	8	1	19	7.301 (.837)
		.0%	26.3%	26.3%	42.1%	5.3%	100.0%	
	57세-59세	2	7	4	11	1	25	
		8.0%	28.0%	16.0%	44.0%	4.0%	100.0%	
	60세-62세	4	6	4	16	1	31	
		12.9%	19.4%	12.9%	51.6%	3.2%	100.0%	
63세 이상	2	8	2	10	0	22		
		9.1%	36.4%	9.1%	45.5%	.0%	100.0%	
전체		8	26	15	45	3	97	
		8.2%	26.8%	15.5%	46.4%	3.1%	100.0%	
교 육 정 도	중졸	3	4	6	2	3	18	34.764 *** (.000)
		16.7%	22.2%	33.3%	11.1%	16.7%	100.0%	
	고졸	4	10	9	24	0	47	
		8.5%	21.3%	19.1%	51.1%	.0%	100.0%	
	대학 이상	1	13	0	21	0	35	
2.9%		37.1%	.0%	60.0%	.0%	100.0%		
전체		8	27	15	47	3	100	
		8.0%	27.0%	15.0%	47.0%	3.0%	100.0%	

		요양 보호사	노인 돌보미	가정 봉사원	노인 상담원	기타	전체	X <sup>2</sup> (p)
직업	유	3	13	10	31	3	60	6.241 (.182)
		5.0%	21.7%	16.7%	51.7%	5.0%	100.0%	
	무	5	14	5	16	0	40	
		12.5%	35.0%	12.5%	40.0%	.0%	100.0%	
전체		8	27	15	47	3	100	
		8.0%	27.0%	15.0%	47.0%	3.0%	100.0%	
월소득	150만원 미만	0	1	6	7	1	15	10.715 (.218)
		.0%	6.7%	40.0%	46.7%	6.7%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	3	1	5	0	10	
		10.0%	30.0%	10.0%	50.0%	.0%	100.0%	
	200만원 이상	2	9	3	19	2	35	
5.7%		25.7%	8.6%	54.3%	5.7%	100.0%		
전체		3	13	10	31	3	60	
		5.0%	21.7%	16.7%	51.7%	5.0%	100.0%	

\*\* p<0.01, \*\*\* p<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 종사분야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상담원 47.0%, 노인돌보미 27.0%, 가정봉사원 15.0%, 요양보호사 8.0%, 기타 3.0%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과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복지 종사분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노인상담원 53.7%, 노인돌보미 29.9%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가정봉사원과 노인상담원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0.01)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가정봉사원 33.3%, 고졸과 대학 이상의 경우 노인상담원이 각각 51.1%,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표 22> 노인복지 외 사회활동 종사의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80	10	90	2.291 (.130)
		88.9%	11.1%	100.0%	
	여	34	9	43	
		79.1%	20.9%	100.0%	
전체		114	19	133	
		85.7%	14.3%	100.0%	
연령	56세 이하	22	6	28	1.969 (.579)
		78.6%	21.4%	100.0%	
	57세-59세	30	6	36	
		83.3%	16.7%	100.0%	
	60세-62세	36	4	40	
		90.0%	10.0%	100.0%	
	63세 이상	22	3	25	
		88.0%	12.0%	100.0%	
전체		110	19	129	
		85.3%	14.7%	100.0%	
교육 정도	중졸	18	8	26	10.155** (.006)
		69.2%	30.8%	100.0%	
	고졸	58	10	68	
		85.3%	14.7%	100.0%	
대학 이상	38	1	39		
	97.4%	2.6%	100.0%		
전체		114	19	133	
		85.7%	14.3%	100.0%	
직업	유	69	12	81	.047 (.828)
		85.2%	14.8%	100.0%	
	무	45	7	52	
		86.5%	13.5%	100.0%	
전체		114	19	133	
		85.7%	14.3%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4	5	19	5.004 (.082)
		73.7%	26.3%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4	4	18	
		77.8%	22.2%	100.0%	
	200만원 이상	41	3	44	
		93.2%	6.8%	100.0%	
전체		69	12	81	
		85.2%	14.8%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 외 사회활동 종사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5.7%가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3%는 종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복지 외 사회활동 종사의향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69.2%, 고졸의 경우 85.3%, 대학 이상의 경우 97.4%로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복지 외에 사회활동에 종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표 23> 노인복지 외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 차이

		전직 관련업	사회복지	취미 활용분야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	21	30	28	1	80	2.117 (.548)
		26.3%	37.5%	35.0%	1.3%	100.0%	
	여	5	15	13	1	34	
		14.7%	44.1%	38.2%	2.9%	100.0%	
전체		26	45	41	2	114	
		22.8%	39.5%	36.0%	1.8%	100.0%	
연령	56세 이하	6	7	9	0	22	9.768 (.370)
		27.3%	31.8%	40.9%	.0%	100.0%	
	57세-59세	6	13	11	0	30	
		20.0%	43.3%	36.7%	.0%	100.0%	
	60세-62세	7	12	15	2	36	
		19.4%	33.3%	41.7%	5.6%	100.0%	
	63세 이상	5	13	4	0	22	
		22.7%	59.1%	18.2%	.0%	100.0%	
전체		24	45	39	2	110	
		21.8%	40.9%	35.5%	1.8%	100.0%	
교육 정도	중졸	4	5	7	2	18	12.333 (.055)
		22.2%	27.8%	38.9%	11.1%	100.0%	
	고졸	14	22	22	0	58	
		24.1%	37.9%	37.9%	.0%	100.0%	
	대학 이상	8	18	12	0	38	
		21.1%	47.4%	31.6%	.0%	100.0%	
전체		26	45	41	2	114	
		22.8%	39.5%	36.0%	1.8%	100.0%	

		전직 관련업	사회복지	취미 활용분야	기타	전체	$\chi^2(p)$
직업	유	14	28	26	1	69	.776 (.855)
		20.3%	40.6%	37.7%	1.4%	100.0%	
	무	12	17	15	1	45	
		26.7%	37.8%	33.3%	2.2%	100.0%	
전체		26	45	41	2	114	
		22.8%	39.5%	36.0%	1.8%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	7	5	1	14	6.614 (.358)
		7.1%	50.0%	35.7%	7.1%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4	6	4	0	14	
		28.6%	42.9%	28.6%	.0%	100.0%	
	200만원 이상	9	15	17	0	41	
		22.0%	36.6%	41.5%	.0%	100.0%	
전체		14	28	26	1	69	
		20.3%	40.6%	37.7%	1.4%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활동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39.5%, 취미활용분야 36.0%, 전직 관련업 22.8%, 기타 1.8%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활동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활동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 1) 노-노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표 24>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여부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65	36	101	6.234* (.013)
		64.4%	35.6%	100.0%	
	여	21	28	49	
		42.9%	57.1%	100.0%	
전체		86	64	150	
		57.3%	42.7%	100.0%	
연령	56세 이하	16	19	35	6.664 (.083)
		45.7%	54.3%	100.0%	
	57세-59세	19	21	40	
		47.5%	52.5%	100.0%	
	60세-62세	27	14	41	
		65.9%	34.1%	100.0%	
	63세 이상	21	9	30	
		70.0%	30.0%	100.0%	
전체		83	63	146	
		56.8%	43.2%	100.0%	
교육 정도	중졸	12	21	33	17.597*** (.000)
		36.4%	63.6%	100.0%	
	고졸	40	36	76	
		52.6%	47.4%	100.0%	
대학 이상	34	7	41		
	82.9%	17.1%	100.0%		
전체		86	64	150	
		57.3%	42.7%	100.0%	
직업	유	54	36	90	.214 (.644)
		60.0%	40.0%	100.0%	
	무	32	25	57	
		56.1%	43.9%	100.0%	
전체		86	61	147	
		58.5%	41.5%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1	12	23	2.261 (.323)
		47.8%	52.2%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3	9	22	
		59.1%	40.9%	100.0%	
	200만원 이상	30	15	45	
		66.7%	33.3%	100.0%	
전체		54	36	90	
		60.0%	40.0%	100.0%	

\* p<0.05, \*\*\* p<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용어 인지도는 57.3%이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과 교육정도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64.4%가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42.9%가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36.4%, 고졸의 경우 52.6%, 대학 이상의 경우 82.9%로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표 25>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인지자의 인식의 차이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저 그렇다	전체	$\chi^2(p)$
성 별	남	12	47	6	65	5.192 (.075)
		18.5%	72.3%	9.2%	100.0%	
	여	9	11	1	21	
		42.9%	52.4%	4.8%	100.0%	
전체		21	58	7	86	1.020 (.985)
		24.4%	67.4%	8.1%	100.0%	
연 령	56세 이하	4	10	2	16	
		25.0%	62.5%	12.5%	100.0%	
	57세-59세	5	13	1	19	
		26.3%	68.4%	5.3%	100.0%	
	60세-62세	7	18	2	27	
		25.9%	66.7%	7.4%	100.0%	
	63세 이상	4	15	2	21	
		19.0%	71.4%	9.5%	100.0%	
전체		20	56	7	83	
		24.1%	67.5%	8.4%	100.0%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저 그렇다	전체	$\chi^2$
교육 정도	중졸	3	7	2	12	3.096 (.542)
		25.0%	58.3%	16.7%	100.0%	
	고졸	12	26	2	40	
		30.0%	65.0%	5.0%	100.0%	
	대학 이상	6	25	3	34	
		17.6%	73.5%	8.8%	100.0%	
전체		21	58	7	86	
		24.4%	67.4%	8.1%	100.0%	
직업	유	10	40	4	54	3.111 (.211)
		18.5%	74.1%	7.4%	100.0%	
	무	11	18	3	32	
		34.4%	56.3%	9.4%	100.0%	
전체		21	58	7	86	
		24.4%	67.4%	8.1%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6	5	0	11	16.369** (.003)
		54.5%	45.5%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3	10	0	13	
		23.1%	76.9%	.0%	100.0%	
	200만원 이상	1	25	4	30	
		3.3%	83.3%	13.3%	100.0%	
전체		10	40	4	54	
		18.5%	74.1%	7.4%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인지자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7.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우 긍정적이다 24.4%, 그저 그렇다 8.1% 순서로 인식하고 있어 응답자의 91.8%가 노-노 케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월 소득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용어인지자의 인식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의 경우 매우 긍정적이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만원-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의 경우 긍정적이다가 각각 76.9%,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이 낮을수록 매우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6> 노-노 케어 비인지자에게 의미 전달 후 인식의 차이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 이다	그저 그렇다	부정적 이다	기타	전체	$\chi^2(p)$
성 별	남	2	20	8	1	0	31	11.759* (.019)
		6.5%	64.5%	25.8%	3.2%	.0%	100.0%	
여	8	10	4	0	3	25		
		32.0%	40.0%	16.0%	.0%	12.0%	100.0%	
전체		10	30	12	1	3	56	
		17.9%	53.6%	21.4%	1.8%	5.4%	100.0%	
연 령	56세 이하	4	10	3	0	2	19	13.973 (.123)
		21.1%	52.6%	15.8%	.0%	10.5%	100.0%	
	57세-59세	4	5	7	0	1	17	
		23.5%	29.4%	41.2%	.0%	5.9%	100.0%	
	60세-62세	2	7	2	0	0	11	
18.2%		63.6%	18.2%	.0%	.0%	100.0%		
63세 이상	0	8	0	0	0	8		
		.0%	100.0%	.0%	.0%	.0%	100.0%	
전체		10	30	12	0	3	55	
		18.2%	54.5%	21.8%	.0%	5.5%	100.0%	
교 육 정 도	중졸	3	9	6	0	2	20	5.546 (.698)
		15.0%	45.0%	30.0%	.0%	10.0%	100.0%	
	고졸	7	17	5	1	1	31	
		22.6%	54.8%	16.1%	3.2%	3.2%	100.0%	
대학 이상	0	4	1	0	0	5		
	.0%	80.0%	20.0%	.0%	.0%	100.0%		
전체		10	30	12	1	3	56	
		17.9%	53.6%	21.4%	1.8%	5.4%	100.0%	
직 업	유	7	14	8	1	1	31	2.858 (.582)
		22.6%	45.2%	25.8%	3.2%	3.2%	100.0%	
	무	3	13	4	0	2	22	
		13.6%	59.1%	18.2%	.0%	9.1%	100.0%	
전체		10	27	12	1	3	53	
		18.9%	50.9%	22.6%	1.9%	5.7%	100.0%	
월 소 득	150만원 미만	3	5	3	0	0	11	4.294 (.830)
		27.3%	45.5%	27.3%	.0%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	4	3	0	0	9	
		22.2%	44.4%	33.3%	.0%	.0%	100.0%	
200만원 이상	2	5	2	1	1	11		
	18.2%	45.5%	18.2%	9.1%	9.1%	100.0%		
전체		7	14	8	1	1	31	
		22.6%	45.2%	25.8%	3.2%	3.2%	100.0%	

\* p<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비인자자에게 의미 전달 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3.6%가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그저 그렇다 21.4%, 매우 긍정적이다 17.9%, 기타 5.4%, 부정적이다 1.8% 순서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에 따른 노-노 케어 비인자자에게 의미 전달 후 인식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긍정적이다 64.5%, 그저 그렇다 25.8%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긍정적이다 40.0%, 매우 긍정적이다 32.0% 순서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27>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의향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65	31	96	.002 (.964)
		67.7%	32.3%	100.0%	
	여	32	15	47	
		68.1%	31.9%	100.0%	
전체		97	46	143	
		67.8%	32.2%	100.0%	
연령	56세 이하	19	16	35	6.469 (.091)
		54.3%	45.7%	100.0%	
	57세-59세	23	14	37	
		62.2%	37.8%	100.0%	
	60세-62세	29	9	38	
		76.3%	23.7%	100.0%	
	63세 이상	23	6	29	
		79.3%	20.7%	100.0%	
전체		94	45	139	
		67.6%	32.4%	100.0%	
교육 정도	중졸	15	17	32	11.477** (.003)
		46.9%	53.1%	100.0%	
	고졸	49	23	72	
		68.1%	31.9%	100.0%	
	대학 이상	33	6	39	
		84.6%	15.4%	100.0%	
전체		97	46	143	
		67.8%	32.2%	100.0%	

		예	아니오	전체	X <sup>2</sup>
직업	유	58	27	85	.112 (.738)
		68.2%	31.8%	100.0%	
	무	39	16	55	
		70.9%	29.1%	100.0%	
전체		97	43	140	
		69.3%	30.7%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4	8	22	2.092 (.351)
		63.6%	36.4%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3	9	22	
		59.1%	40.9%	100.0%	
200만원 이상	31	10	41		
	75.6%	24.4%	100.0%		
전체		58	27	85	
		68.2%	31.8%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7.8%가 활동하겠다고 하였으며, 32.2%는 활동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의향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46.9%, 고졸의 경우 68.1%, 대학 이상의 경우 84.6%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8>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에 적당한 연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

		60세 이하	61세-65세	66세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	26	37	21	84	9.660** (.008)
		31.0%	44.0%	25.0%	100.0%	
	여	23	14	3	40	
		57.5%	35.0%	7.5%	100.0%	
전체		49	51	24	124	
		39.5%	41.1%	19.4%	100.0%	
연령	56세 이하	11	12	3	26	5.229 (.515)
		42.3%	46.2%	11.5%	100.0%	
	57세-59세	11	15	4	30	
		36.7%	50.0%	13.3%	100.0%	
	60세-62세	15	11	9	35	
		42.9%	31.4%	25.7%	100.0%	
	63세 이상	9	12	8	29	
		31.0%	41.4%	27.6%	100.0%	
전체		46	50	24	120	
		38.3%	41.7%	20.0%	100.0%	
교육 정도	중졸	13	9	5	27	4.225 (.376)
		48.1%	33.3%	18.5%	100.0%	
	고졸	20	25	15	60	
		33.3%	41.7%	25.0%	100.0%	
대학 이상	16	17	4	37		
	43.2%	45.9%	10.8%	100.0%		
전체		49	51	24	124	
		39.5%	41.1%	19.4%	100.0%	
직업	유	28	31	14	73	.141 (.932)
		38.4%	42.5%	19.2%	100.0%	
	무	20	19	9	48	
		41.7%	39.6%	18.8%	100.0%	
전체		48	50	23	121	
		39.7%	41.3%	19.0%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3	1	3	17	17.963** (.001)
		76.5%	5.9%	17.6%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6	7	5	18	
		33.3%	38.9%	27.8%	100.0%	
	200만원 이상	9	23	6	38	
		23.7%	60.5%	15.8%	100.0%	
전체		28	31	14	73	
		38.4%	42.5%	19.2%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의 적당한 연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1-65세 41.1%, 60세 이하 39.5%, 66세 이상이 19.4%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월 소득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의 적당한 연령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61-65세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60세 이하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의 경우 60세 이하가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만원-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의 경우 61-65세가 각각 38.9%,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표 29> 노-노 케어서비스 활동수고비의 최저금액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무보수	30만원 이하	31만원-50만원 이하	51만원-80만원 이하	81만원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	5 5.9%	25 29.4%	26 30.6%	20 23.5%	9 10.6%	85 100.0%	14.060 ** (.007)
	여	0 .0%	3 7.5%	18 45.0%	17 42.5%	2 5.0%	40 100.0%	
전체		5 4.0%	28 22.4%	44 35.2%	37 29.6%	11 8.8%	125 100.0%	
연령	56세 이하	0 .0%	4 15.4%	10 38.5%	10 38.5%	2 7.7%	26 100.0%	11.596 (.479)
	57세-59세	1 3.3%	6 20.0%	13 43.3%	7 23.3%	3 10.0%	30 100.0%	
	60세-62세	3 8.1%	7 18.9%	10 27.0%	14 37.8%	3 8.1%	37 100.0%	
	63세 이상	1 3.6%	11 39.3%	7 25.0%	6 21.4%	3 10.7%	28 100.0%	
전체		5 4.1%	28 23.1%	40 33.1%	37 30.6%	11 9.1%	121 100.0%	

		무보수	30만원 이하	31만원-50 만원 이하	51만원-80 만원 이하	81만원 이상	전체	$\chi^2$
교육 정도	중졸	0	9	10	8	0	27	9.254 (.321)
		.0%	33.3%	37.0%	29.6%	.0%	100.0%	
	고졸	2	13	19	19	8	61	
		3.3%	21.3%	31.1%	31.1%	13.1%	100.0%	
	대학 이상	3	6	15	10	3	37	
		8.1%	16.2%	40.5%	27.0%	8.1%	100.0%	
전체		5	28	44	37	11	125	
		4.0%	22.4%	35.2%	29.6%	8.8%	100.0%	
직업	유	5	16	28	20	6	75	4.458 (.348)
		6.7%	21.3%	37.3%	26.7%	8.0%	100.0%	
	무	0	10	15	17	5	47	
		.0%	21.3%	31.9%	36.2%	10.6%	100.0%	
전체		5	26	43	37	11	122	
		4.1%	21.3%	35.2%	30.3%	9.0%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0	4	7	6	1	18	8.426 (.393)
		.0%	22.2%	38.9%	33.3%	5.6%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0	6	5	6	2	19	
		.0%	31.6%	26.3%	31.6%	10.5%	100.0%	
	200만원 이상	5	6	16	8	3	38	
		13.2%	15.8%	42.1%	21.1%	7.9%	100.0%	
전체		5	16	28	20	6	75	
		6.7%	21.3%	37.3%	26.7%	8.0%	100.0%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수고비의 최저금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1만원-50만원 이하 35.2%, 51만원-80만원 이하 29.6%, 30만원 이하 22.4%, 81만원 이상 8.8%, 무보수 4.0%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수고비의 최저금액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31만원-50만원 이하 30.6%, 30만원 이하 29.4%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31만원-50만원 이하 45.0%, 51만원-80만원 이하 42.5% 순서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30>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일일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

		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	28	47	10	85	9.370 ** (.009)
		32.9%	55.3%	11.8%	100.0%	
	여	6	23	13	42	
		14.3%	54.8%	31.0%	100.0%	
전체		34	70	23	127	
		26.8%	55.1%	18.1%	100.0%	
연령	56세 이하	7	16	5	28	4.233 (.645)
		25.0%	57.1%	17.9%	100.0%	
	57세-59세	8	16	6	30	
		26.7%	53.3%	20.0%	100.0%	
	60세-62세	8	21	8	37	
		21.6%	56.8%	21.6%	100.0%	
	63세 이상	11	15	2	28	
		39.3%	53.6%	7.1%	100.0%	
전체		34	68	21	123	
		27.6%	55.3%	17.1%	100.0%	
교육정도	중졸	6	16	5	27	7.365 (.118)
		22.2%	59.3%	18.5%	100.0%	
	고졸	13	36	15	64	
		20.3%	56.3%	23.4%	100.0%	
	대학 이상	15	18	3	36	
		41.7%	50.0%	8.3%	100.0%	
전체		34	70	23	127	
		26.8%	55.1%	18.1%	100.0%	
직업	유	27	39	12	78	7.092* (.029)
		34.6%	50.0%	15.4%	100.0%	
	무	6	29	11	46	
		13.0%	63.0%	23.9%	100.0%	
전체		33	68	23	124	
		26.6%	54.8%	18.5%	100.0%	
월소득	150만원 미만	4	13	3	20	4.004 (.405)
		20.0%	65.0%	15.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6	9	4	19	
		31.6%	47.4%	21.1%	100.0%	
	200만원 이상	17	17	5	39	
		43.6%	43.6%	12.8%	100.0%	
전체		27	39	12	78	
		34.6%	50.0%	15.4%	100.0%	

\* p<0.05, \*\* p<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일 근무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시간-6시간 미만 55.1%, 4시간 미만 26.8%, 6시간 이상 18.1%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직업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활동 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4시간-6시간 미만 55.3%, 4시간 미만 32.9%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4시간-6시간 미만 54.8%, 6시간 이상 31.0% 순서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직업은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4시간-6시간 미만 50.0%, 4시간 미만 34.6%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4시간-6시간 미만 63.0%, 6시간 이상 23.9% 순서로 높게 나타나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31> 노인문제 해결사로서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64	34	98	.026 (.871)
		65.3%	34.7%	100.0%	
	여	32	16	48	
		66.7%	33.3%	100.0%	
전체		96	50	146	
		65.8%	34.2%	100.0%	
연령	56세 이하	20	15	35	4.511 (.211)
		57.1%	42.9%	100.0%	
	57세-59세	22	15	37	
		59.5%	40.5%	100.0%	
	60세-62세	31	9	40	
		77.5%	22.5%	100.0%	
	63세 이상	21	9	30	
		70.0%	30.0%	100.0%	
전체		94	48	142	
		66.2%	33.8%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
교육 정도	중졸	15	18	33	11.020** (.004)
		45.5%	54.5%	100.0%	
	고졸	48	25	73	
		65.8%	34.2%	100.0%	
	대학 이상	33	7	40	
		82.5%	17.5%	100.0%	
전체		96	50	146	
		65.8%	34.2%	100.0%	
직업	유	58	29	87	.022 (.882)
		66.7%	33.3%	100.0%	
	무	38	18	56	
		67.9%	32.1%	100.0%	
전체		96	47	143	
		67.1%	32.9%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5	8	23	2.441 (.295)
		65.2%	34.8%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2	10	22	
		54.5%	45.5%	100.0%	
	200만원 이상	31	11	42	
		73.8%	26.2%	100.0%	
전체		58	29	87	
		66.7%	33.3%	100.0%	

\*\*  $p < 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사로서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5.8%가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34.2%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사로서 참여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45.5%, 고졸의 경우 65.8%, 대학 이상의 경우 82.5%로 노인문제 해결사로서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표 32> 노인문제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위한 교육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65	4	69	.148 (.701)
		94.2%	5.8%	100.0%	
	여	36	3	39	
		92.3%	7.7%	100.0%	
전체		101	7	108	
		93.5%	6.5%	100.0%	
연령	56세 이하	20	1	21	.928 (.819)
		95.2%	4.8%	100.0%	
	57세-59세	26	1	27	
		96.3%	3.7%	100.0%	
	60세-62세	31	3	34	
		91.2%	8.8%	100.0%	
	63세 이상	22	1	23	
		95.7%	4.3%	100.0%	
전체		99	6	105	
		94.3%	5.7%	100.0%	
교육 정도	중졸	20	2	22	.311 (.856)
		90.9%	9.1%	100.0%	
	고졸	49	3	52	
		94.2%	5.8%	100.0%	
	대학 이상	32	2	34	
		94.1%	5.9%	100.0%	
전체		101	7	108	
		93.5%	6.5%	100.0%	
직업	유	58	4	62	.002 (.965)
		93.5%	6.5%	100.0%	
	무	42	3	45	
		93.3%	6.7%	100.0%	
전체		100	7	107	
		93.5%	6.5%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5	1	16	1.279 (.528)
		93.8%	6.3%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13	0	13	
		100.0%	.0%	100.0%	
	200만원 이상	30	3	33	
		90.9%	9.1%	100.0%	
전체		58	4	62	
		93.5%	6.5%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문제해결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93.5%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6.5%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문제해결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문제해결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기간의 필요성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노인문제해결사의 역할을 위해 이수해야할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체	$\chi^2(p)$
성별	남	29	21	15	0	65	4.107 (.250)
		44.6%	32.3%	23.1%	.0%	100.0%	
	여	12	10	13	1	36	
		33.3%	27.8%	36.1%	2.8%	100.0%	
전체		41	31	28	1	101	
		40.6%	30.7%	27.7%	1.0%	100.0%	
연령	56세 이하	7	7	6	0	20	7.441 (.591)
		35.0%	35.0%	30.0%	.0%	100.0%	
	57세-59세	11	8	6	1	26	
		42.3%	30.8%	23.1%	3.8%	100.0%	
	60세-62세	11	8	12	0	31	
		35.5%	25.8%	38.7%	.0%	100.0%	
	63세 이상	11	8	3	0	22	
		50.0%	36.4%	13.6%	.0%	100.0%	
전체		40	31	27	1	99	
		40.4%	31.3%	27.3%	1.0%	100.0%	
교육정도	중졸	5	5	10	0	20	7.927 (.243)
		25.0%	25.0%	50.0%	.0%	100.0%	
	고졸	20	16	12	1	49	
		40.8%	32.7%	24.5%	2.0%	100.0%	
	대학 이상	16	10	6	0	32	
		50.0%	31.3%	18.8%	.0%	100.0%	
전체		41	31	28	1	101	
		40.6%	30.7%	27.7%	1.0%	100.0%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체	$\chi^2(p)$
직업	유	24	21	12	1	58	3.973 (.264)
		41.4%	36.2%	20.7%	1.7%	100.0%	
	무	17	10	15	0	42	
		40.5%	23.8%	35.7%	.0%	100.0%	
전체		41	31	27	1	100	
		41.0%	31.0%	27.0%	1.0%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3	9	3	0	15	13.298* (.039)
		20.0%	60.0%	20.0%	.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3	5	4	1	13	
		23.1%	38.5%	30.8%	7.7%	100.0%	
200만원 이상	18	7	5	0	30		
	60.0%	23.3%	16.7%	.0%	100.0%		
전체		24	21	12	1	58	
		41.4%	36.2%	20.7%	1.7%	100.0%	

\*  $p < 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문제해결사의 역할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개월 이내 40.6%, 2개월 이내 30.7%, 3개월 이내 27.7%, 6개월 이내 1.0%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월 소득에 따른 노인문제해결사 역할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과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2개월 이내가 각각 60.0%,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의 경우 1개월 이내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 소득에 따른 노인문제해결사 역할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34>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여겨질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71	28	99	9.430** (.002)
		71.7%	28.3%	100.0%	
	여	45	3	48	
		93.8%	6.3%	100.0%	
전체		116	31	147	
		78.9%	21.1%	100.0%	
연령	56세 이하	31	4	35	4.809 (.186)
		88.6%	11.4%	100.0%	
	57세-59세	30	7	37	
		81.1%	18.9%	100.0%	
	60세-62세	28	13	41	
		68.3%	31.7%	100.0%	
	63세 이상	23	7	30	
		76.7%	23.3%	100.0%	
전체		112	31	143	
		78.3%	21.7%	100.0%	
교육 정도	중졸	31	2	33	10.555** (.005)
		93.9%	6.1%	100.0%	
	고졸	59	14	73	
		80.8%	19.2%	100.0%	
대학 이상	26	15	41		
	63.4%	36.6%	100.0%		
전체		116	31	147	
		78.9%	21.1%	100.0%	
직업	유	65	23	88	2.845 (.092)
		73.9%	26.1%	100.0%	
	무	48	8	56	
		85.7%	14.3%	100.0%	
전체		113	31	144	
		78.5%	21.5%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22	1	23	18.214*** (.000)
		95.7%	4.3%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	2	22	
		90.9%	9.1%	100.0%	
	200만원 이상	23	20	43	
		53.5%	46.5%	100.0%	
전체		65	23	88	
		73.9%	26.1%	100.0%	

\*\* p<0.01, \*\*\* p<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되는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되게 될 것에 우려정도는 78.9%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과 교육정도, 월 소득에 따른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되는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71.7%, 여자의 경우 93.8%로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된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93.9%, 고졸의 경우 80.8%, 대학 이상의 경우 63.4%로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된다고 하여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의 경우 95.7%,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90.9%, 200만원 이상의 경우 53.5%로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된다고 하여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표 35> 초 고령사회에서 노-노 케어가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41	30	71	2.109 (.146)
		57.7%	42.3%	100.0%	
	여	32	13	45	
		71.1%	28.9%	100.0%	
전체		73	43	116	
		62.9%	37.1%	100.0%	
연령	56세 이하	15	16	31	5.071 (.167)
		48.4%	51.6%	100.0%	
	57세-59세	18	12	30	
		60.0%	40.0%	100.0%	
	60세-62세	21	7	28	
		75.0%	25.0%	100.0%	
	63세 이상	16	7	23	
		69.6%	30.4%	100.0%	
전체		70	42	112	
		62.5%	37.5%	100.0%	
교육 정도	중졸	16	15	31	5.341 (.069)
		51.6%	48.4%	100.0%	
	고졸	36	23	59	
		61.0%	39.0%	100.0%	
	대학 이상	21	5	26	
		80.8%	19.2%	100.0%	
전체		73	43	116	
		62.9%	37.1%	100.0%	
직업	유	37	28	65	3.055 (.080)
		56.9%	43.1%	100.0%	
	무	35	13	48	
		72.9%	27.1%	100.0%	
전체		72	41	113	
		63.7%	36.3%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3	9	22	1.847 (.397)
		59.1%	40.9%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9	11	20	
		45.0%	55.0%	100.0%	
	200만원 이상	15	8	23	
		65.2%	34.8%	100.0%	
전체		37	28	65	
		56.9%	43.1%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에서 노-노 케어가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2.9%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37.1%는 대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에서 노-노 케어의 대안여부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고령사회에서 노-노 케어의 대안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연소노인이 노인 케어를 수행할시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성별	남	87	11	98	1.543 (.214)
		88.8%	11.2%	100.0%	
	여	39	9	48	
		81.3%	18.8%	100.0%	
전체		126	20	146	
		86.3%	13.7%	100.0%	
연령	56세 이하	31	4	35	2.124 (.547)
		88.6%	11.4%	100.0%	
	57세-59세	31	6	37	
		83.8%	16.2%	100.0%	
	60세-62세	33	7	40	
		82.5%	17.5%	100.0%	
	63세 이상	28	2	30	
		93.3%	6.7%	100.0%	
전체		123	19	142	
		86.6%	13.4%	100.0%	
교육 정도	중졸	24	9	33	6.645* (.036)
		72.7%	27.3%	100.0%	
	고졸	65	7	72	
		90.3%	9.7%	100.0%	
	대학 이상	37	4	41	
		90.2%	9.8%	100.0%	
전체		126	20	146	
		86.3%	13.7%	100.0%	

		예	아니오	전체	$\chi^2(p)$
직업	유	75	12	87	.049 (.824)
		86.2%	13.8%	100.0%	
	무	49	7	56	
		87.5%	12.5%	100.0%	
전체		124	19	143	
		86.7%	13.3%	100.0%	
월 소득	150만원 미만	20	3	23	2.568 (.277)
		87.0%	13.0%	100.0%	
	150만원 -200만원 미만	21	1	22	
		95.5%	4.5%	100.0%	
200만원 이상	34	8	42		
	81.0%	19.0%	100.0%		
전체		75	12	87	
		86.2%	13.8%	100.0%	

\*  $p < 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소노인의 노인 케어를 수행할시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6.3%는 효율적이라고 하였고, 13.7%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연소노인의 노인 케어 효율성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72.7%, 고졸의 경우 90.3%, 대학 이상의 경우 90.2%로 연소노인의 노인 케어 효율성이 있다고 하여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37> 연소노인이 노인 케어를 수행할시 유의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청년세대에 비하여 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다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잔존기능이 청년세대보다 월등하다	실비정도의 수입을 정신적 만족감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전체	$\chi^2(p)$
성 별	남	19 21.8%	60 69.0%	3 3.4%	5 5.7%	87 100.0%	4.558 (.207)
	여	8 20.5%	22 56.4%	3 7.7%	6 15.4%	39 100.0%	
전체		27 21.4%	82 65.1%	6 4.8%	11 8.7%	126 100.0%	
연 령	56세 이하	5 16.1%	21 67.7%	2 6.5%	3 9.7%	31 100.0%	6.794 (.659)
		8 25.8%	18 58.1%	2 6.5%	3 9.7%	31 100.0%	
	60세-62세	6 18.2%	21 63.6%	2 6.1%	4 12.1%	33 100.0%	
		8 28.6%	20 71.4%	0 .0%	0 .0%	28 100.0%	
전체		27 22.0%	80 65.0%	6 4.9%	10 8.1%	123 100.0%	
교 육 정 도	중졸	2 8.3%	16 66.7%	0 .0%	6 25.0%	24 100.0%	16.885* (.010)
		14 21.5%	46 70.8%	4 6.2%	1 1.5%	65 100.0%	
	대학 이상	11 29.7%	20 54.1%	2 5.4%	4 10.8%	37 100.0%	
전체		27 21.4%	82 65.1%	6 4.8%	11 8.7%	126 100.0%	
직 업	유	20 26.7%	46 61.3%	5 6.7%	4 5.3%	75 100.0%	6.666 (.083)
	무	6 12.2%	36 73.5%	1 2.0%	6 12.2%	49 100.0%	
전체		26 21.0%	82 66.1%	6 4.8%	10 8.1%	124 100.0%	
월 소 득	150만원 미만	6 30.0%	13 65.0%	1 5.0%	0 .0%	20 100.0%	2.745 (.840)
		5 23.8%	14 66.7%	1 4.8%	1 4.8%	21 100.0%	
	200만원 이상	9 26.5%	19 55.9%	3 8.8%	3 8.8%	34 100.0%	
전체		20 26.7%	46 61.3%	5 6.7%	4 5.3%	75 100.0%	

\* p<0.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소노인이 노인 케어 수행시 유익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65.1%, “청년세대에 비하여 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다” 21.4%, “실비정도의 수입을 정신적 만족감으로 극복할 수 있다” 8.7%,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잔존기능이 청년세대보다 월등하다” 4.8%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연소노인의 노인케어 도움이 되는 부분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의 경우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66.7%, “실비정도의 수입을 정신적 만족감으로 극복할 수 있다” 25.0%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의 경우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70.8%, “청년세대에 비하여 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다” 21.5%로 높게 나타났고, 대학 이상의 경우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54.1%, “청년세대에 비하여 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다” 29.7% 순서로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표 38> 고령화사회 용어 인지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용어 인지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	예	85	63	148	.045 (.833)
		57.4%	42.6%	100.0%	
	아니오	1	1	2	
		50.0%	50.0%	100.0%	
전체		86	64	150	
		57.3%	42.7%	100.0%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용어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용어 인지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용어 인지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제공 활동 의향의 차이

		예	아니오	전체	$\chi^2(p)$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	예	95	46	141	.962 (.327)
		67.4%	32.6%	100.0%	
	아니오	2	0	2	
		100.0%	.0%	100.0%	
전체		97	46	143	
		67.8%	32.2%	100.0%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제공 활동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제공 활동 의향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용어 인지 여부에 따른 노-노 케어 서비스 제공 활동 의향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4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으로 살펴 본 연구대상자는 우선 연령에 있어서는 55세에서 64세까지의 연소노인층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표본 집단에 참가한 조사대상자 중 남자연소노인들이 67.3%로 여자연소노인의 32.7%에 비하여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동호회활동이나 불교아카데미 수업 등을 수강하는 활발한 고령자들이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의 시사점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연소노인들의 생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연소노인세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연소노인들은 본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응답(94.0%)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소노인들이 노인으로 인정하는 연령은 70세 이상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이 높은 연소노인일수록 노인인정연령이 상향(75세 이상, 48.8%) 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에 대해서는 여자(약80-82세, 30.6%)가 남자(약78세, 35.6%)에 비해 연령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약82세가 32.7%,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75세가 31.3%로 나타났으며, 수명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성과 학력이 높고 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수명의 상한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인 연소노인들의 1.3%를 제외한 모두(98.7%)가 ‘고령화 사회’

라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자응답자는 100%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음을 응답자의 95.9%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입연도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중졸, 고졸이하(54.8%, 58.6%),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150만원 미만 59.1%, 150-200만원 미만 70.0%)가 2000년이라 대답했고, 대학이상(51.2%),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응답자(48.8%)가 2005년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에 대해서는 약 10%라는 대답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43.8%), 연령(59세 이하, 51.3%) 및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50.0%) 노인의 비율이 약 10%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약8.5%, 40.0%), 연령(63세 이상, 8.5%, 50.0%) 및 학력(대학이상, 8.5%, 43.9%)이 높을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을 비교적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초 고령사회’에 대한 용어인지도(82.0%)는 ‘고령화 사회’ 용어인지도(98.7%)에 비해 낮았다. 여성(63.3%)에 비해 남성(91.1%)의 인지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용어인지도(중졸 57.6%, 고졸 82.9%, 대학이상 100.0%)가 높았다.

응답 연소노인의 98.4%가 우리나라가 초 고령사회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진입연도는 약 2015년일 거라는 응답이 82.1%로 가장 많았다. 학력(중졸 2025년 21.1%, 고졸 2020 19.0%)년 이 낮을수록 진입연도를 길게 잡았다.

초 고령사회가 되었을 때 가장 큰문제로 대두될 것은 응답연소노인 대부분(87.0%)이 경제문제를, 다음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11.4%)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 2. 고령화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했던 대부분(88.7%)의 연소노인들은 모든 노인이 노인복지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11.3%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중졸 78.8%, 고졸 88.2%)에 따른 격차를 보였는데 대학이상인 연소

노인의 경우는 97.6%의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75.2%의 조사대상 연소노인들이 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0세 이상(60-62세 88.6%, 63세 이상 84.6%)의 연소노인들의 참여의향이 더 높았다. 또한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인상담원(47.0%), 노인돌보미(27.0%), 가정봉사원(15.0%), 요양보호사(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성(53.7%), 학력(고졸 51.1%, 대학이상 60.0%)이 높을수록 노인상담원을 선호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가정봉사원과 노인상담원이 33.3%로 같게 나타났다.

노인복지 외 사회활동의 종사의향에는 대부분(85.7%)의 응답자가 종사의향을 보였으나 14.3%의 연소노인은 종사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으며, 학력(대학이상 97.4%)이 높을수록 적극적이었다. 노인복지 외의 사회활동에서도 사회복지분야(39.5%)에 종사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미활동분야(36.0%)를 선호하였다.

### 3.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고령화 사회’ 및 ‘초 고령사회’ 용어 인지도(98.7%, 82.0%)에 비해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용어 인지도(57.3%)는 훨씬 낮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42.9%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남성의 경우도 64.4%로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다. 학력(중졸 36.4%, 고졸 5.6%, 대학이상 82.9%)이 낮은 경우 확연히 인지율도 낮게 나타났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91.8%가 노(老)-노(老) 케어에 대해 호의적인(매우 긍정적이다 24.4%, 긍정적이다 67.4%) 반응을 보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150만원 미만 54.9%, 150-200만원 미만 23.1%, 200만원 이상 3.3%)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노(老)-노(老) 케어 용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하던 조사대상자에게 의미를 전달한 후에 노(老)-노(老) 케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바 53.6%가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17.9%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32.0%)이 남성(6.5%)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7.8%가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활동의향을 보였으며, 3.2%는 활동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학력(중졸 46.9%, 고졸 68.1%, 대학이상 84.6%)이 높을수록 활동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활동의 적당한 연령은 61-65세가 41.1%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하(57.5%)를 더 지지하였다. 즉 남성은 61-65세가 44.0%로 가장 높았으며, 월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150만원 미만 60세 이하 76.5%, 150-200만원 미만 61-65세 38.9%, 200만 원 이상 61-65세 60.5%)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수는 31-50만 원 정도를 최저금액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3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은 45.0%로 남성의 30.6%보다 31-50만 원 정도에 높은 응답 율을 보였다. 또한 남성은 다음으로는 30만 원 이하에 29.4%를 나타냈으나 여성의 경우는 두 번째의 높은 응답 율은 51-80만원으로 42.5%를 나타냈다.

근무시간은 하루당 4-6시간미만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여성의 응답이 55.3%, 54.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응답자(4-6시간미만 63.0% 6시간이상 23.9%), 가 직업이 있는 응답자(4-6시간미만 50.0%, 4시간미만 34.6%)에 비해 근무시간의 단위가 높았다.

노인문제의 해결사로서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의향은 65.8%, 그에 반해 부정적 응답도 34.2%의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력(중졸 45.5%, 고졸 65.8%, 대학이상 82.5%)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보였다.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93.5%)의 응답자가 공감하였으며,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40.6%)가 가장 많았다. 월 소득(200만 원 이상)이 많을수록 1개월 이내(60.0%)의 교육기간을 선호하였고, 월 소득(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이 낮을수록 2개월 이내(60.0%, 38.5%)를 선호하였다.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될 것을 염려하는 응답이 78.9%이었으며, 여성은 대부분(93.8%)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중졸 93.9%, 고졸 80.8%, 대학이상 63.4%)이 낮을수록, 월소득(150만원 미만 95.7%, 150-200만원 미만 90.9%, 200만원 이상 53.5%)이 적을수록 염려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가 초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62.9%, 부정적 응답이 37.1%로 나타났다.

86.3%의 응답자가 연소노인이 노인을 케어 할 때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며, 학력(중졸 72.7%, 고졸 90.3%, 대학이상 90.2%)이 높을수록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연소노인이 노인을 케어 하면,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세대에 비하여 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다는 응답이 21.4%로 전체적으로 보면 동질감이 노인을 케어 할 때 유익할 거라는 응답 율이 높았다.

## 제2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연소노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역할에 관한 인식,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조사에 응한 연소노인들 대부분(94.0%)이 본인을 노인이라 인식하지 않았으며, 7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사회에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활발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노인비율 8.5-10%, 66.9%)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 라는 용어를 인지(98.7%, 82.0%)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연도(2000년 50%)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년도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예견보다도 훨씬 빠르게(2015년, 82.1%) 다가올 거라는 예측을 보였는데 이는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를 혼돈한 영향으로 보여 진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초 고령사회에 대두될 문제로 경제문제(87.0%)와, 세대 간의 갈등(11.4%)을 들었다. 이들 문제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노인부양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향후의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문제가 해결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도 자연 완화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예: 노인복지분야의 종사의향 87.5%, 노-노 케어 활동의향 84.6%)

모든 노인이 노인복지의 대상임을 대부분(88.7%)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분야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종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향(75.2%)이 개진되었다.

노인복지 외 사회활동(85.7%)에도 높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사회복지 종사의향(39.5%)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이상 97.4%) 좀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소노인들이 그들의 노후에는 사회에 공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들의 풍부한 생활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당연성일 것이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64.4%)로 ‘고령화사회’(98.7%), ‘초고령사회’(82.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자체 및 복지관 등에 적극 도입되어 시행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인들에게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호의적(91.8%)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연소노인은 하루 4-6시간미만 정도(55.1%)의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보수의 최저금액으로 월 31-50만

원 정도(35.2%)의 저임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응답연소노인들이 경제면에서 여유가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지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리목적이 아닌 봉사차원의 일자리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케어 활동을 위한 일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직업이 없는 응답자(4-6시간미만 63.0%, 6시간 이상 23.9%)가 직업이 있는 응답자(4-6시간미만 50.0%, 6시간이상 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활동연령은 남성은 60세 이상(44.0%)이 활동연령으로 적당하다고 한 반면 여성은 60세 이하(57.5%)가 더 적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것은 남성들은 사회적 은퇴연령을 60세 이후로, 여성들은 55세 전후로 여기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노인복지분야의 종사를 원하는 연소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때 참여연령의 하한선을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남성은 60세 이상으로 하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응답자의 과반수이상(65.8%)이 노인문제의 해결사로서 참여할 의향을 보인 반면에 적지 않은(34.2%) 응답자의 부정적의견도 개진되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부양부담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동질감이 전제되어있는 연소노인세대가 앞장서 풀어나야할 현대사회의 과제이므로 사회적 동의를 얻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라 여겨진다.

노인문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보인 응답 연소노인의 대부분은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93.5%)을 인정하였으나,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40.6%), 2개월 이내(30.7%), 3개월 이내(27.7%)로 짧게 받기를 원했다. 이것은 노인복지분야 소요인력을 세분화(전문인력, 보조인력, 유급자원봉사, 무급자원봉사 등)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원하는 교육기간에 걸 맞는 역할부여가 필요하며, 이는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부분(78.9%)의 응답자들이 초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짐으로 인식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학력(중졸 93.9%)이 낮은 응답자, 여성(93.8%) 대부분이 보다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 예견되어지는 부분이다.

초 고령사회에서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62.9%) 응답이 부정적인(37.1%) 응답에 비해 많았으나, 부정적으로 나타난 응답자의 비율도 시사 하는바가 크므로 부정적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연소노인세대가 노인을 케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는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65.1%), 친밀도가 높다는(21.4%) 점으로 들고 있는바 노인친화적동질감이 연소노인세대의 최대의 장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였던 연소노인들 대부분이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 현상들을 겪고 있으며, 초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의 고령사회에서 노인부양부담증가 등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고, 경제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연소노인 대부분은 고령사회에서의 사회문제 특히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로서, 우리사회가 고령사회의 대안으로 자신들에게 역할을 부여한다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감수하고서라도 노인복지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연소노인세대는 우리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공통분모로서, 각 세대 간의 연결 고리가 되어 사회에서 부여하는 역할수행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된 훌륭한 인적자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 세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高齡化 社會)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사회의 정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문화(文化)·개인(個人) 등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위기(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代案)의 하나로 우리사회의 잠재된 양질의 인적자원(人的資源)인 연소노인(年少老人)세대를 부각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2008.7.1)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분야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많은 인적자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노인재가복지실천현장에서 최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노인이 케어를 요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care)) 서비스’를 고찰하고, 노인친화적동질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연소노인세대로 ‘노(老)-노(老) 케어(care)) 서비스’사업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연소노인들 대부분은 고령화 사회의 극복 방안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역할 부여가 있다면 책임감과 교육의 의무를 감당하고서라도 기꺼이 동참(同參)하겠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가 개진되었다. 이는 우리사회의 연소노인들이 그들의 노후를 사회에 공헌할 준비가 되어있는 양질의 인적자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지며, 연소노인의 활용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연소노인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친화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동질감(同質感)이 전제되어있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실천현장에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라 향후 복지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전망이므로, 우리사회의 잠재(潛在)된 훌륭한 인적자원인 연소노인세대들을 요양요원 등으로 양성하여 활

용하고, 노(老)-노(老) 케어(care)) 서비스 사업을 연소노인세대가 노인을 케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소노인세대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특수한 역사적 연령층(historical cohort)으로 전쟁 후의 빈곤한 국가를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도(主導)했던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자랑스러운 세대이다. 이들 세대의 역량과 에너지를 재가 복지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인을 케어 함에 있어서 술선수범의 모습을 신세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사회의 웃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인상(老人相)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아래 고령사회의 해결사로서의 사명감을 인지한 연소노인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노(老)-노(老) 케어서비스가 병약(病弱)한 노인뿐만 아니라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노화(老化)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廣範圍)하게 확장되어 시행(施行)된다면, 거의 ‘혁명적(革命的) 수준(水準)’<sup>98)</sup>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급속한 진행으로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제언(提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의 노인복지분야에 전문복지인력을 보조하는 유급 자원봉사(有給自願奉仕)의 성격을 띤 다양한 일자리(예: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노인상담사 등) 개발을 통하여 연소노인세대들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制度化)해야 할 것이다(예: 청(靑)-노(老) 케어 서비스 사업도입) 또한 연소노들에게는 고령사회의 대처방안으로 노인문제해결에 직접 나선 세대로서의 자부심(自負心)을 고취(高趣)시키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세대들로

---

98) 미국 노인학협회 존 핸드릭스 회장이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에 대해 언급함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소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자리로서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노인부양부담비용의 감소 및 노인부양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농어촌으로 연소노인들이 귀향(歸鄉)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를 들면 폐가를 수리하여 주택 제공, 노인복지 전문보조인력으로 양성하여 농어촌에 배치 등)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支援)해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은퇴한 후 사회에 공헌하기를 원하는 연소노인층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여 연소노인들의 귀향을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연소노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유용한 잔존(殘存) 에너지를 농어촌의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분야(농어촌의 고령노인 지킴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부정적 의미의 노인(老人)이란 말 대신에, 긍정적인 용어(예: 어르신, 웃어른)를 발굴하고, 노인을 삶의 지혜가 가득한 사회의 웃어른으로 공경할 수 있는 분위기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숙인(熟人), 미국에서는 ‘선배시민(senior citizen)’또는 황금세대(golden age), 프랑스에서는 ‘제3세대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표본조사대상이었던 연소노인 대부분이 본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인식(認識)하고 있었다는 결과에 주목하여 연소노인세대를 지칭(指稱)하는 새로운 용어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목했던 부분은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가 그리 흔치 않았던 관계로 선

진외국의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適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우리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부상(浮上)시키고자 하는 연소노인세대(年少老人世代)에 대한 연구가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필요치 않았으며, 점차로 진행된 고령화 과정 속에 나름대로 준비가 가능했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속히 진행되는 위기상황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처방안(對處方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가 주목(注目)할 만큼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궈냈던 우리나라만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資源)인 연소노인세대의 성공적인 활용여부가 우리사회의 최대 관건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질의 인적자원인 연소노인들을 장기노인요양보험시행(2008.7.1)에 따라 더욱 확대되어질 노인복지분야에 효율적(效率的)으로 활용(活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方案)을 마련하고, 노인문제 해결세대라는 자부심 고취를 통한 연소노인들의 자발적인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위기(危機)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눔과 배려에 의한 세대 간의 화합으로 사회통합(社會統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미흡(未洽)한 연구이나마 본 연구자는 급변(急變)하는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사회의 구심점(求心點)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된 양질의 인적자원인 연소노인세대(年少老人世代)의 중요성을 사회전반에 부각(浮刻)시켜 보고자하였다. 그리고 고령사회의 극복 대처방안의 하나로 우리사회의 귀한 인적자산(人的資產)인 연소노인세대에게 새로운 역할(예 : 노인문제해결사, 노인도우미 등) 부여(附與)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시도(試圖)하여, 향후 복지인력의 부족이 예견(豫見)되는 노인복지분야에 요양(療養)인력 등으로 육성(育成)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고수현 외 (2004). 『노인복지론』, 서울 ; 양서원.
- 김범수 (2003).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 현학사.
- 모선희 외 (2006).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서울 ; 학지사.
- 박차상 외 (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 서병진 (2007). 『노인복지론』, 서울 ; 솔바람.
- 서병진·고재욱 (2004). 『사회복지실천현장론』, 서울 ; 솔바람.
- 서상철. (2004). 『노인복지론』, 서울 ; 홍익제.
- 송종부 (2000). 『사회복지학연구』, 서울 ; 법지사.
- 양옥남 외 (2007). 『노인복지론』, 서울 ; 공동체.
- 장인협·최성재 (2001).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지영 외 (2003). 『실버라이프에 대한 이해』, 서울 ; 학문사.
- 조성남 외 (1998). 『고령화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 ; 집문당.
- 프랑크 쉬르마허, 장혜경(역) (2005). 『고령사회 2018-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서울 ; 나무생각.
- 홍숙자 (2001). 『노년학개론』, 서울 ; 하우.

### 2. 연구논문

- 강창범 (2006)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수 (2004).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가운 (2006). 「노인의 여가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2006). 「연소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하 (2004).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대상과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2004). 「전문직 은퇴노인의 자원봉사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8).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교육적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 (2007).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석원 (200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순주 (2003). 「노인자원봉사 유급화가 노인인력활용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근 (2006).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인식에 따른 활성화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용규 (2007). 「노인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재정이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명 (2002) 「재가복지서비스 성과평가 모형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교 (2003).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태 (2006). 「재가노인복지대상자의 서비스만족도에 관한 연구-홍성군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7).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노인의 유희인력 활성화 방안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2004). 「노인부양에 관한 간호사의 인식도 조사연구」, 경희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05).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우 (2007). 「재가노인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 관련성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신 (2005). 「중년기 남성의 생활불안과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화 (2006). 「지역밀착 가정형 너싱홈의 설립과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현 (2001).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옥 (2002). 「노인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관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칭 (2004).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밀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현진 (2005). 「중상층 연소퇴직교원들의 시간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형호 (2007).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양례 (2003).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욕구와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전남화순군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광윤 (2006). 「노인자원봉사활용의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대연 (2003). 「노인자원봉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학술지

- 공상길 (2006).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불교노인복지 발전과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 김동배 (2005). 『노인과 자원봉사』, 현대사회문화연구소 통권264호, pp.19-27
- 김용년 (2005).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건강보험포럼 제4권 제3호, pp.102.115.
- 김철수 (2006). 『고령화와 사회복지』,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2호 통권 제322호, pp.48-55.
- 박재간 (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제25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재홍 (1992). 『한국세대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92년사회학대회, pp.32-39
- 변재관 (2006). 『실버시대, 일자리와 사회참여』, 국회보 통권474호 pp.80-83.
- 성미애 · 옥선화 (2002). 『남성퇴직자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1호 통권167호
- 송정현 (1996). 『노인의 역할과 삶의 질 향상』, 한국건강사회 교육학회
- 신해섭 · 이수남 (2002).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는행제』, 생활과학연구 제7권
- 안명옥 (2005).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 해소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8
- 이가옥 · 이지영 (2005). 『남성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 이영호 (2005). 『고령사회 한국의 농어촌』, 정책자료집, pp.8-9.
- 장경섭 (1995). 『조기퇴직자의 가족적 지원과 대책방안: 토론』, 한국노년

학 제15권 제 1호, pp.138-140

- 장천식 (2005). 『2004·2005년 재가어르신의 지역내 역량강화를 위한 “행복한 두레모임”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정무성 (200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전문적인 지역사회보호 사업실천방향』, 사회복지관협회
- 지은구 (2004).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의 사업성격 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집 1호
- 최성재 (2006). 『노화연구와 고령사회』, 국제학술대회

#### 4.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회전자도서관, <http://u-lib.nanet.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사단법인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

조흥식 (2007).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http://cafe.naver.com/social86/44626>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노년학회. <http://www.tkgs.go.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Care of the Old-Old by the Young-Old*

Im, Song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It is accepted that the twenty-first century, unless a natural disaster seriously reduces the population of the world, will be 'the era of the ageing population'.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ociology of Aging, John Handricks, has described the situation in Korea as particularly volatile. Consequently, simply borrowing strategies to deal with ageing populations from advanced countries will not be sufficient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

This dissertation proposes that a partial solution to the impending crisis can be found by looking to the younger-elderly (55 to 64, young-old) to care for the over-65s (old-old). The former group makes up 9% of the population of Korea, numbering 4,400,000.

They young-old are the generation who led Korea out of its postwar poverty to its current advanced status. This dissertation explores how this high quality human resource can be used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old. A questionnaire was used to examine the

young-olds' perception of an ageing society and their place within it as care work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most of the young-old recognize the fact that our society is ageing increasingly rapidly. They also realise that the need to provide care for the elderly will be a potential source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s well a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young-old are willing to care for the old-old even though they cannot expect adequate remuneration and will be required to undergo training.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as potential methods for coping with our aging society:

Firstly, in return for assisting the professional human welfare resources in the indoor welfare service (for example by helping at sanatoriums, assisting the bereaved elderly, providing them with counseling, etc), the young-old generation should be guaranteed some salary.

Secondly,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young-old should be properly acknowledged within society to forestall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s.

Thirdly, the local council should invent and support programs which make young-old come back to their hometown in rural areas which nearly reach more aging society (for example, offering accommodation refurbishing deserted houses, dispatching young-old to rural regions as an assistant of professional elderly welfare force, etc)

Finally,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an ageing population, we should make an effort to create a positive

term for the elderly instead of the negative term, 'the old' with the consequence that we should form a society in which the elderly are respected as wise people.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young-old should be considered as a crucial generation who are able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aging society. It also suggests that we should assign the young-old new roles to help over 65s, so that they can become a useful human resource within the social welfare system.

## 설문지

### 연소노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역할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노인복지분야의 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 임 송 희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소노인(young-old)세대이신 만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어르신들께서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음을 인식하고 계신지의 여부와 고령화 사회에서 신·구세대의 중심계층으로서의 연소노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진심으로 답해주신 설문지의 내용들은 이후의 노인복지분야에서 초석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사회를 보다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르신들의 귀한 의견들은 통계화 되어 저의 연구에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활성화되는 노인복지를 기대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설문응해 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08년 4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연구자 : 임 송 희

지도교수 : 서 병 진

I.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O해 주시거나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어르신의 성별은? ①남 ( )                      ②여( )

2. 어르신의 연령은? 만 ( ) 세

3. 어르신의 종교는?

①기독교( ) ②천주교( ) ③불교( ) ④기타( )

4. 어르신의 교육정도는?

①무학( ) ②초졸( ) ③중졸( ) ④고졸( ) ⑤대학( )  
⑥대학원이상( ) ⑦기타( )

5. 어르신께서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기혼( ) ②미혼( ) ③이혼( ) ④재혼( )  
⑤사별( ) ⑥기타( )

6. 어르신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①아주 건강하다( )                      ②건강한 편이다( )  
③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④아주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7. 어르신께서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 )남 ( )여      총 ( )명

8. 어르신의 주거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단독주택( ) ②연립주택( ) ③아파트( ) ④임대주택( )  
⑤기타( )

9. 어르신의 가구형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단독가구( ) ② 핵가족( ) ③ 대가족( ) ④ 기타( )

10. 어르신은 직업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1. 직업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① 자영업( ) ② 공무원( ) ③ 회사원( ) ④ 전문직( )  
⑤ 생산직( ) ⑥ 기타( )

12. 현직에 계시다면 향후 몇 년 정도 더 근무하실 예정이십니까?

- ① 1~2년 이상( ) ② 3~4년 이상( ) ③ 5~6년 이상( )  
④ 7~8년 이상( ) ⑤ 기타( )

13. 현직에 계시다면 월급 또는 월 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① 50만원 미만( )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⑤ 200만원 이상( )

14. 현직에 계시다면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기타( )

15. 어르신의 주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① 월급( ) ② 이자 및 임대료( ) ③ 연금( ) ④ 가족의 지원( )  
⑤ 기타( )

Ⅱ.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인식하고 계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이 노인이라 생각하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2. 몇 살 이상을 노인이라 생각하십니까?  
①55세 이상( ) ②60세 이상( ) ③65세 이상( )  
④70세 이상( ) ⑤75세 이상( ) ⑥기타( )
  
3.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기준)  
①약65세( ) ②약68세( ) ③약70세( ) ④약73세( )  
⑤약75세( ) ⑥약78세( ) ⑦약80세( ) ⑧약82세( ) ⑨기타( )
  
4.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①약65세( ) ②약68세( ) ③약70세( ) ④약73세( )  
⑤약75세( ) ⑥약78세( ) ⑦약80세( ) ⑧약82세( ) ⑨기타( )
  
5.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①약65세( ) ②약68세( ) ③약70세( ) ④약73세( )  
⑤약75세( ) ⑥약78세( ) ⑦약80세( ) ⑧약82세( ) ⑨기타( )
  
6.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7.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입니까?  
①예( ) ②아니오( )

8.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1995년( ) ②2000년( ) ③2005년( ) ④2007년( ) ⑤기타( )

9.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약5%( ) ②약7%( ) ③약8.5%( ) ④10%( ) ⑤기타( )

10. 초 고령 사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11. 초 고령사회의 의미를 알고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12. 우리나라의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언제쯤 일거라고 예상하십니까?

①약2015년( ) ②약2020년( ) ③약2025년( ) ④약2030년( )

13. 초 고령사회로 진행되어 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경제적 문제( ) ②세대 간의 갈등문제( ) ③주택문제( ) ④기타( )

14. 위 문항에서 ②에 답하신 분은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보십시오.





13. 어르신은 노인문제 해결사가 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①예( )                      ②아니오( )

14. 위의 13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하신 어르신은 소정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1개월이내( )            ②2개월이내( )            ③3개월이내( )  
④4개월이내( )            ⑤6개월이내( )            ⑥기타( )

15. 노-노 케어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 정도

16. 어르신께서는 향후 초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들이 사회의 짐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계십니까?

- ①예( )                      ②아니오( )

17. 위의 16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하신 어르신께서는 노-노 케어가 초 고령 사회의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예( )                      ②아니오( )

18. 어르신께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신 연소노인세대가 불편한 노인들을 케어 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예( )                      ②아니오( )

19. 위의 18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하신 어르신께서는 어떤 점에서 연소 노인세대가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청년세대에 비하여 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다( )  
②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 ③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잔존기능이 청년세대보다 월등하다( )
- ④실비정도의 수입을 정신적 만족감으로 극복할 수 있다( )
- ⑤기타( )

\* 장시간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고견이 향후 노인복지분야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 논문의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연구자 : 임 송 희